metro®

메트로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제2926호 www.metrobusan.co.kr

놀람! 경건! 기쁨! 입학식 표정도 가지각색

3일 전국 각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일제히 입학식이 열렸다. 서울 서대문구 미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선배들의 태권도 격파 공연을 보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왼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는 신입생들이 경건한 표정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가운데). 서울대학교 새내기들은 껑충 뛰어오르는 장면으로 입학식을 기념했다. /연합뉴스·뉴시스

감언이설로 계약 후 "나 몰라라"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⑦ 프랜차이즈 '불공정의 늪' 현주소

#1 화장품 가맹본부인 토니모리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회사는 2012년 6월부터 9월 사이 "여천점이 허위로 포인트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당 가맹점에 대한 상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게다가 같은 해 10월 여천점이 위치한 곳에 서 100m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운영해 여천점이 하루 평균 매출액의 56% 정도 감소하는 피해가 가도록 했다.

가맹점주 약점 이용 밀어내기 일쑤 생계비 '허덕'
근접 출점 등 묻지마식 확대 관리 미비 곳곳에…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 상권 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 남용에 해당해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니모리는 201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데 이어 2012년 7월에도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공정위에 신고된 바 있다.

이 사례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회문제가 된 '갑을 논란' 가운데 화장품 브랜드 숍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가운데 한 가지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 급성장한 화장품 브랜드 숍들이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양상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갑의 횡포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운영 결정권을 가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소통 없는 일방적 관리 행사가 꼽힌다.

화장품 브랜드 숍 가맹점주들은 가장 심각한 갑의 횡포로 근접 출점과 밀어내기를 지적하고 있다. 다른 업종인 방문판매 대리점주들은 상권 분할을 꼽았다. 또 편의점주들은 밀어내기 관행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최소한의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동안 토니모리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브랜드 숍 이외에 CU·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갑의 횡포 리스트에 올랐던 업체들 외에도 수많은 업체가 이 문제에 연루돼 왔다.

◆창업 열풍에 '을의 늪' 빠져드는 가맹점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을 논란이 유독 빈번한 것은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짧아지는 은퇴 시기 속에서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너도나도 창업에 눈에 돌리고 창업 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청 집계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신설 법인 수는 6만5110곳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에 등록된 50대 자영업자는 178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는 5만6000명 감소했지만 베이비붐 세대에서만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3년 이내에 사업을 접는 아픔을 겪는다.

게다가 이에 편승한 가맹본부들의 무분별한 '묻지마'식 가맹점 확대와 사후 관리 미비 등의 전략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가맹본부들이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꾀어 우선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점 후에는 '나 몰라라' 하거나 궁지에 몰린 가맹점주의 사정을 악용해 밀어내기 등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창업자들이 모두 '목돈'을 챙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서비스업 부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평균 연간 매출액 규모는 2억327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맹점당 영업비용이 2억820만원에 달해 연간 평균 영업이익은 2450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10.5%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결국 품목이 중복되는 과도한 프랜차이즈 창업이 이어지면서 가맹점들이 생존 경쟁을 위해 판촉, 덤핑행사 등을 벌이다 보니 정작 가맹점주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7만5000곳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이 9만9000곳, 도·소매가 5만 곳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종사자 수는 5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숙박·음식점(57.6%)과 도·소매(28.0%) 업종이 대부분(85.6%)이었다. 가맹점당 종사자수는 3.3명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면에 계속>

세운상가 점포 존치 171개로 쪼개 개발

세운상가 주변 일대가 171개 구역으로 세분화돼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된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5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변경안은 전면 철거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 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을 담았다.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 비율 50% 이외에 오피스텔 10% 이내를 추가로 허용했고, 주거 비율의 30% 이상을 소형(60㎡ 미만)으로 계획했다.

구역은 옛 도시 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3000㎡) 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눠 기존 도시 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 최고 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 중규모 간선부 90m, 이면부 70m다.

/김민준기자 mjkim@

메트로신문 '캠퍼스 특별호' 배포 메트로신문은 대학 새 학기 개강을 맞아 '캠퍼스 특별호'를 제작, 3일 수도권 지하철역 입구 및 70여 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사진은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 배포된 특별호를 학생들이 읽고 있는 모습. /손진영기자

北 미사일 2발 또 동해 발사

비거리 500km 스커드 계열…도발

북한이 3일 새벽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 상으로 추가 발사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1일 사거리 150km 수준인 300mm 신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4발을 발사한 데 이어 한·미 훈련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달 27일 사거리 220km 정도인 스커드 계열 추정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에 이은 추가 도발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6시19분에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발사 거리는 500여km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전 항행 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 국제 항행 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가 큰 상황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쥐려고 저강도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경비정 1척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3차례 이동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최근 북한이 쏘는 발사체의 사거리가 점차 길어져 500km 이상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KN-02 개량형이나 300mm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150km를 넘지 않았지만 이번 발사체의 사거리는 훨씬 길었다.

군 당국은 사거리를 고려할 때 지난달 27일 발사체는 스커드-B, 이날 발사체는 사거리 500km 이상인 스커드-C 혹은 사거리 700km 이상인 스커드-D 개량형인 스커드-ER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추정이 군 당국의 추가 분석을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은 2009년 7월 4일 이후 5년여 만에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미국 핵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 미국 7함대 소속 핵추진 잠수함인 콜럼버스호(SSN-762·7000t급)가 한미 연합연습인 독수리(Foal Eagle)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3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급의 51번째 핵잠수함인 콜럼버스호는 1993년 취역했으며 선체 길이는 110.3m에 이른다. 사거리 31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블록3)과 사거리 130km의 하푼 대잠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 모녀 참사와 월세시대 선언

기자 수첩

박 선 옥 <경제산업부 기자>

정부가 사실상 월세 시대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임대 시장의 중심의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감에 따라 전세 지원을 줄이는 대신 월세 지원은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는 언젠가 사라질 제도이고, 다가오는 월세 시대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얼핏 선제적으로 대응한 훌륭한 대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월세 시대를 선언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복지 등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후진적인 상황에서 월세만 낸다고 '주택임대차 선진화'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회에서의 월세 시대는 서민들은 평생 아프지도 말고 일만 해서 매달 집세만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

근로자의 상당수가 월세 세액공제 자체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세입자의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번 제도와 배치된다. 불과 며칠 전 자살한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은 월세 세액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정부의 선언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월세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안전망 확충, 수요자들의 인식 변화 등이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전세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월세가 차지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여야 지방선거 새 판짜기 고심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으로 6·4 지방선거가 새누리당과 통합 신당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급전환하면서 여야가 새로운 전략 짜기에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모습이지만 당내에서는 강력해진 야권의 단일 대오와 맞서야 하는 위기상황을 경고하며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다.

일단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한 실망을 증폭하는 프레임을 구축하면서 '구태 야합 야권' 대 '믿음직한 여권'으로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어 5선의 남경필 의원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원희룡 전 의원에게 각각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제주도지사 출마를 종용하는 등 중진 등에 대한 총 동원령을 내렸다. 7선의 정몽준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 측과의 통합 작업을 이달 내에 마무리 짓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실천으로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을 이룬 만큼 이번 지방선거를 '약속 정치' 대 '거짓 정치'로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부시 전 대통령 만나 환담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방한 중인 조지 W 부시(사진 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고 말하자, 부시 전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아주 긴요한 관계로서 현 정부도 공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여야 의원 박정희 생가 방문

●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든 '동서화합포럼'이 3일 경북 구미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동서화합포럼은 새누리당 영남지역, 민주당 호남지역 의원들이 지역주의 극복과 화합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룬다는 취지로 만든 모임이다. 이날 의원들은 기념식수 및 기념석 제막 행사를 가졌다.

교황 방한 일정·시복식 장소 조사

교황청의 실사단이 최근 비공개로 방한해 교황 방한을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을 벌였다.

3일 천주교에 따르면 교황청 실사단은 지난 2월 중순 방한해 교황의 방한 일정과 의전,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과 관련,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돌아갔다.

실사단은 서울 명동성당과 8월 아시아 청년대회가 열리는 대전지역 등을 둘러봤다. 또 시복식 후보지인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 공항, 여의도 한강 둔치 등 3~4곳을 방문해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교황 프란치스코가 소박하고 검소한 성격임을 감안할 때 한국 천주교의 최대 순교지인 서소문 순교성지 등 제3의 장소에서 시복식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조현정기자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⑦ 프랜차이즈 '불공정의 늪' 현주소

창업 전 시장 검증은 필수코스

<1면에서 계속>

◆사업법 시행됐지만 실효성엔 의문

이런 가운데 '편의점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지난해 '과도한 해지 위약금' '24시간 강제 영업' 등으로 고통받던 편의점주들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자 마련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비춰볼 때 이 법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야 영업을 자율로 한다는 조항도 6개월간 운영을 해본 뒤 적자가 이어지면 근거 자료를 제공한 뒤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편의점은 여름에 매출이 높고 겨울에 매출이 낮은 특징 등이 있어 6개월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이 시행령에는 장려금 중단 지원 등을 통해 가맹본부가 심야 영업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의 횡포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민단체들은 "해지 위약금 관련 내용도 가맹본부가 후속 임차인을 받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점주가 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며 "적자가 나는 점포는 위약금을 없애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한 화장품 가맹본부 앞에서 가맹점을 그만두게 된 점주가 시위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신규 창업 3년 동안 생존율 54%

2008년 서울에서 문을 연 음식점과 휴대전화 매장, 커피숍 등의 절반가량은 3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 반면 편의점과 카센터·세탁소는 열 곳 가운데 일곱 곳 이상이 생존했다.

지난달 4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공개한 '2013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창업 후 생존해 있는 사업체의 생존율은 1년 81%, 2년 67%, 3년 54%로 나타났다.

3년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육시설(90%), 치과·일반의원(78%), 약국(76%), 자동차수리(75%) 순으로 주로 전문 업종이었다.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PC방(32%), 의류점(43%), 휴대전화 매장(44%), 당구장(44%), 부동산중개업(46%) 순으로 두 곳 중 한 곳꼴로 3년 내에 폐업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김진수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년층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섣불리 창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시적인 상품까지 들고 시장 검증을 받으며 비즈니스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예비 창업자나 가맹점주들이 신중해야한다. 희망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과거 불공정 사례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뉴스 검색 등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 또 가맹 계약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와 기타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정영일·김학철·정혜인기자 prms@metroseoul.co.kr

공무원 간첩 사법공조 요청

대검찰청, 중국 법무부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중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3일 "오늘 중으로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줄 수 있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형사사법 공조조약·규칙에 따라 법무부가 중국 측에 사법 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소재 파악, 사람·물건의 소재 및 동일성 확인 등의 절차에서 협력하게 된다.

윤 부장은 주중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우크라이나 軍 소집령 2일(현지시간) 무장한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심페로폴 외곽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기지 밖에서 행군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크림반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전국에 예비군 소집령을 내리고 전군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中 올 성장률 하향조정 촉각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

중국 '양회'가 3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동시에 여는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세계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2년차를 맞아 이번 양회에서 개혁과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그림자 금융, 부동산, 지방 부채 등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현안에 대한 개선 조치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덩이처럼 커진 지방정부 부채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7.5%에서 낮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말 10조7000억 위안(약 1800조원)에서 지난해 6월 말 17조9000억 위안(약 3100조원)으로 늘었다.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지방정부로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개혁과 경제구조 전환에 나서면서 고성장보다는 안정 속의 질적 성장과 분배, 구조조정, 환경 문제 등에 경제 정책의 방점을 찍다보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7.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5%로 제시한다면 소규모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지만 7.0%로 낮추면 공급 과잉 해소와 그림자 금융 단속 등을 강화하며 투자 증가세가 한 단계 낮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전국 초·중·고생 첫 인성검사

정부가 초·중·고등학생의 인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도구를 개발, 전국적인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등학교 5학년생·중학교 2학년생·고등학교 1학년생 각 1만5000명씩 모두 4만5000명을 표집해 인성검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는 도시·농촌 간, 대도시·중소도시 간 지역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서울,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등으로 나눠서 실시된다.

검사 대상이 되는 덕목은 정직, 절제, 자율, 책임 및 성실, 배려 및 소통, 예의, 정의, 시민성, 인류애, 지식 및 지혜 등 10개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예비 검사를 해 문항의 난이도·신뢰도·타당도를 검증, 최종적으로 검사 문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윤다혜기자 ydh@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루스벨트 제32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1933년 3월 4일 미국 대통령 직에 무려 3번이나 당선되어 12년간 백악관을 차지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압도적인 표 차로 대통령에 또다시 취임했다. 그는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고 제2차 세계 대전 때 연합군에 합류하여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려 24년간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았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장애를 극복하여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됐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확대

서울시 동대문구는 구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내 공공청사 및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WiFi)존을 확대,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무선인터넷 이용은 동대문 무선인터넷존에서 접속하면 된다.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서울시 성동구는 4일 구청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한다.

구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송파구민 창업교육 개최

서울시 송파구가 3일부터 8일까지 송파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구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2014년 1분기 구민 창업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새봄맞이 대청소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역에서 송파구 주민과 공무원 300여 명이 '주민과 함께하는 새봄맞이 대청소'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 집단 휴진 강력 대응

정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방침

오는 10일 총파업에 들어가는 의료계가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마련하자 정부가 이에 즉각 대응하며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전 노환규 의협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선임한 후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과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우선 오는 23일까지 지역 대학병원을 포함하는 전 회원의 투쟁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공식적으로 선언한 대로 10일에 필수 진료 인원을 제외한 전일 파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 준법 진료 및 준법 근무를 시행하고 이후 24일부터 29일까지는 필수 진료 인원도 파업에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투쟁위원회는 이와 같은 투쟁 일정 추진을 위해 5일까지 행동지침과 투쟁 관련 안내문, 그리고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5일 혹은 6일 중에 전국 개원의 반상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별 전공의 총회 및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지난 37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전체 의사 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자 회원들의 엄중한 주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의 총파업 강행에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이 추진하는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이 결정한 휴진 방침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 법률은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자 이 법률을 통해 검찰에 의협을 고발한 적이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대출 사기 3조2천억 확인

KT ENS직원 3명 구속 기소

KT ENS 직원 등이 저지른 대출사기 규모가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KT ENS 김모(52) 부장과 통신기기업체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41)씨, 컬트모바일 대표 김모(42)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2014년 1월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여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48·수배)씨 등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9개 은행에서 251회에 걸쳐 1조124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김씨도 전씨와 함께 8개 은행에서 129차례에 걸쳐 2322억원을 대출받았다.

/윤다혜기자 ydh@

청소·경비직 근로자 시위 3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청소·경비 근로자들이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광장에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 할머니가 부끄러운 듯 얼굴을 가린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해야

고용부는 17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이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장별로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 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한 뒤 납부 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충당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된다.

올해부터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에 64세가 된 달부터 면제됐던 고용보험료를 올해부터는 납부해야 한다.

보수 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기록 매체를 이용해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보수 총액 신고 등 보험 사무 절차가 어렵다면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 사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사무 대행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무료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윤다혜기자 ydh@

공주경찰서장 숨진 채 발견

김호철(47·총경·사진) 충남 공주경찰서장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25분께 공주시 금학동 서장 관사에서 김 서장이 숨져있는 것을 서장 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의경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의경은 "서장이 출근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관사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안방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다"고 말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서장의 휴대전화에는 이날 오전 0시31분께 공주서 수사과장과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다.

경찰은 김 서장이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장으로 부임한 그는 연일 지구대를 방문해 업무를 지시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사건을 챙기며 열정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처음 일선 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만큼 업무에 열정적이었다"며 "건강했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한 그는 지난 1월 21일 공주서장으로 부임해 관사에서 홀로 생활했다.

주민증에 새 주소 스티커

안전행정부는 24일까지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동시에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개별 가구를 방문토록 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기 행사도 진행한다.

7일까지 정부 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여준다.

/윤다혜기자

덕성여대 2014 새내기 환영

덕성여자대학교는 지난달 28일 덕성여대 내 하나누리관에서 교내외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입생들은 4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나의 희망 서명보드'에 소망의 글을 남겼다.

또 신입생들은 캐리커처 초상화를 선물로 받았으며, 신입생들의 각오를 모은 타임캡슐과 선배들의 봉사활동 사진전 등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신입생 입학을 축하하는 재학생들의 축하 공연과 KBS 개그콘서트 '두근두근'팀의 개그 공연 등이 식전행사로 진행됐다.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Colombia

Si odia el trancón,

metro France

...rie Trierweiler fait une app...
...shion week de Paris

metro Brazil

Café. Consumo tem 1ª queda em dez anos

O consumo de café no Brasil recuou 1,23% em 2013, totalizando 20,08 milhões de sacas de 60 kg, em comparação com 20,33 milhões

다시 나타난 올랑드 동거녀

지난 1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결별로 주목받았던 전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르(가운데)가 최근 파리 패션위크에 나타나 주목받았다. 올랑드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한 1월 말, 트리에르바일레르는 인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28일 파리에서 열린 패션위크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패션쇼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브라질 커피 소비량 줄었다

'커피의 나라'로 불리는 브라질의 커피 소비량이 이례적으로 줄어들었다. 브라질의 커피 소비량이 감소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며 1990년 브라질 커피산업 협회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는 두 번째 일어난 매우 희귀한 현상이다.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 브라질에서 소비된 커피는 2008포대(120만t)로 집계돼 2012년의 2033만 포대에 비해 1.23%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헬리콥터 택시 운행 계획 눈길

콜롬비아 보고타…1회 이용 15만원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다. 지하철은 만원이고 도로 위 자동차는 '거북이 걸음'이다.

최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한 민간 기업이 '헬리콥터 택시'(사진)를 운행할 계획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콜롬비아 최초로 '헬기 택시' 회사를 설립한 '플라이엘리트'. 헬기 조종사 한 명과 사업가 두 명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회사를 세웠다. 플라이엘리트 측은 얼마 전 보고타를 방문한 다국적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직접 만나 헬기 택시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 임원들은 이들의 잠재 고객이다.

최근 몇 년 새 중남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보고타를 비롯한 콜롬비아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 덕분에 도시에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고 그만큼 교통 체증도 심해졌다.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업체들이 하나둘 느는 걸 보면서 헬리콥터 택시의 성장 가능성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헬기 택시의 1회 이용 요금은 30만 페소(약 15만원)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비싼 편이다. 이같이 높은 가격 때문에 향후 이용 승객은 기업의 고위 임원 등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가격은 비싸지만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즈니스맨들이 주요 회의 등을 위해 헬기 택시를 이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보고타시에서 교통 체증이 절정에 달할 때 지상에서 1시간15분이 걸리는 거리를 헬기 택시로는 단 7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하지만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조건 태워다주는 것은 아니다. 보고타 시내에 설치될 헬기 택시 탑승장은 불과 6곳이다. 승객들은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내려 다른 방법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헬기 이용 인원도 한 번에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플라이엘리트는 3월 한 달간은 보고타 도심 지역에서만 헬기 택시를 운행하고, 4월부터는 보고타 주변 도시로 운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Hongkong

36歲「童...

이 얼굴이 36세? 동안에 얼짱녀 中 네티즌 '시끌'

최근 중국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얼짱'이 있다.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를 가진 그가 인터넷 스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이 때문이다.

광둥성 선전시 출신인 그는 웨이보에서 '스자오z(十早z)'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설 무렵 그는 웨이보에 "이제 곧 36세다. 슬프다. 35세의 젊음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라는 글로 자신의 나이를 밝혀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1979년생으로 올해 36세다. 하지만 하얗고 깨끗한 피부, 앳된 얼굴 때문에 전혀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

그의 나이를 안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26세처럼 보인다. 아니, 그보다도 어려 보인다"고 말했고, 다른 네티즌은 한국 드라마 제목을 인용해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닌가"라며 동안녀의 외모를 칭찬했다.

네티즌들은 '절대 동안'인 그에게 '천산동모'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천산동모는 김용의 무협소설 '천용팔부'에 등장하는 인물로 연로했지만 여전히 '젊은 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그의 사진을 보고 "인기를 끌기 위해 나이를 속였다"며 의심했다. 그러자 '동안녀'는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공개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며 "이전에도 나이를 여러 차례 밝혔으니 이제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키는 160㎝가 안 되고, 허리둘레는 22인치라고 신체 사이즈도 공개했다. "원래 피부가 좋은 편이고 화장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클렌즈"라고 밝혔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3일>

코스피 1,964.69 (−15.30)

코스닥 529.86 (+0.90)

금리(국고채 3년) 2.89 (+0.04)

환율(원·달러) 1070.70 (+3.20)

뉴스&뉴스

사과처럼 붉어지는 '애플망고' 3일 서울 갤러리아백화점 식품관에서 모델들이 달콤한 맛과 상큼한 향이 돋보이는 애플망고를 선보이고 있다. 애플망고는 잘 익으면 사과처럼 색이 붉게 변하며 달고 향이 좋아 '과일의 여왕'이라 불린다. /한화갤러리아 제공

산은, 기업 성장 무료 컨설팅

●산업은행이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무료 컨설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기, 성장·성숙기, 도약기 등 단계별 기업들에 산업은행이 초기 경영 전략, 자금조달 전략, 재무 전략,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산업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은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 후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김민지기자

상장폐지 기업 4년째 감소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 상장폐지된 기업 수가 총 22개사로 금융위기 이후 4년째 감소했다고 한국거래소가 3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정점을 찍었던 2009년(52개사)에 비해 반 토막 난 수준이다. 상폐 사유로는 감사 의견 비적정이 68.2%(15개사)로 가장 많았고 자본잠식 27.3%(6개사), 기타 매출액 미달 4.5%(1개사) 등이 뒤따랐다.

거래소는 "정기 결산 시즌을 맞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차기 한은 총재에 이주열 전 부총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 이주열(62·사진) 전 한은 부총재를 내정했다.

3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정통 한은맨으로 한국은행 업무에 누구보다 밝으며 판단력과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식견과 감각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이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뛰어난 판단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발휘해 일찌감치 한은을 이끌어갈 리더로 꼽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다양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크게 기여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지난 2009년 부총재로 승진, 2012년 한은을 떠난 뒤에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으로 지내왔다. /김민지기자 minji@

'중국 양회' 눈치보는 국내 증시

'그림자 금융' 규제 위한 긴축땐 단기적 둔화
개혁정책 수혜주·대중 수출 확대주 관심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개막된 가운데 향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양회에서는 그림자 금융, 부동산, 지방 부채 등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현안에 대한 개선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자 금융은 국제적 이슈가 될 정도로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란 전통적인 은행 대출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여신 행위로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다.

키움증권 마주옥 연구원은 "중국은 올해 긴축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그림자 금융 규제와 부동산 억제 등 유동성을 조절해 구조조정을 촉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긴축이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 4, 5월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 경착륙을 완화할 수 있다"며 "하반기부터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투자증권 김진영 연구원은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과 그림자 금융 규제에 따른 경기 둔화로 유동성 위축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에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의 개혁 조치가 정책 수혜주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IBK투자증권 박옥희 연구원은 "한국 증시에서 중국 정책 수혜주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화학, IT, 자동차 부품, 식음료 업종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3D프린팅 피규어' 신기하네 서울 신도림 디큐브백화점은 9일까지 고객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해낸 3D프린팅 피규어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디큐브백화점 제공

'中펀드' 괜히 들었어!

올들어 수익률 마이너스

중국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가 올 들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위안화 급락과 그림자 금융 우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 칼날을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악재로 작용했다.

3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는 올 들어 7.53% 하락했고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H주 펀드는 3.20% 떨어졌다.

중국 본토 펀드(이하 설정액 10억원 이상) 중 '동부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H)(주식)ClassC-F'와 'KB연금코차이나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이 각각 -0.25%, -0.68%로 그나마 낙폭이 작았다.

홍콩H주 펀드 중에서는 '동부그레이터차이나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1(주식)클래스 C-F'가 연초 이후 3.94% 오른 것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었다.

중국 펀드의 자금 유출세도 거세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식 인덱스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관련 주식펀드가 4주째 순유출을 기록했다.

중국이 이번주 열리는 중국 양회와 전인대에서 경기 부양보다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란 예상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1~2월 모두 기준치를 밑도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기만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급락 방지와 위안화 절상에 베팅한 외부 핫머니 등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경고, 그림자 금융 리스크 해소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고시 여풍에… 취업자 5명 중 1명 전문직

국내 취업자 5명 중 1명은 의사·변호사·교수·연구원·가수·탤런트·운동선수·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관련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곳곳에서 '여풍(女風)'이 거세게 분 덕분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취업자 2506만6000명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96만6000명(19.8%)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04년 15.4%에 비해 4.4%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여성 전문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 1457만3000명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66만4000명으로 18.3%였던데 반해 여성은 취업자 1049만4000명 중 전문직 종사자가 230만2000명으로 21.9%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의 40.2%를 여성이 차지할 정도로 전문직의 여성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담배연기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들의 평생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캠페인으로 앞장서겠습니다.

|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 |

-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한 해 58,000명
-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 6.5배~2.9배 증가

※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금액은 연간 약 1조 7천억 원으로 201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이며, 국민 전체 한 달치 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입니다.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

- 여성 폐암 환자 20%가 남편의 흡연이 원인
- 남편의 흡연으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 50% 증가
- 흡연부모가 있는 집의 어린이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률 5.7배, 폐암 발생률 2배 높음

※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들고 있는 담배가 타들어 가며 생기는 부류연을 마시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류연은 담배 속의 모든 독성물질, 발암물질 그리고 니코틴을 거르지 않고 내보내는 독한 연기로,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기 중 섞이는 담배연기 가운데 75~85%는 부류연이라고 합니다.

주택대출 금리 천차만별

은행·신용도별 최대 3%포인트 이상 격차

주택담보대출 상환 금리가 은행과 신용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 금리는 수협과 산업은행이 연 4.47%와 4.46%로 가장 높았다. 최저인 한국씨티은행(연 3.60%)과는 0.87%포인트나 차이를 보였다. 전북은행(연 4.06%)과 기업은행(연 4.00%)도 4%를 넘었고 외환은행(연 3.96%), 대구은행(연 3.93%), 국민은행·경남은행(연 3.8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연 3.81%)도 3% 후반대였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수협의 7~10등급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6.75%인 반면, 광주은행의 1~3등급은 3.46%에 불과했다. 3%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인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위험 분산을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금리 차를 줄일 필요가 시급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3월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고 금리 등의 개선을 통해 취급 비중을 조속히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금리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 모기지 공급도 올해 29조원까지 늘린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와 장기·분할상환 방식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상품의 금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하나 김종준·외환 김한조 은행장 후보 추천

하나금융그룹이 지난달 28일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이하 경발위)를 개최하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은행장 후보로 각각 김종준(**왼쪽 사진**) 현 하나은행장과 김한조(**오른쪽**) 외환캐피탈 사장을 추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가계·기업부문 등을 두루 거친 뒤 2012년 3월 취임해 조직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임 외환은행장 후보로 추천된 김한조 사장은 1982년 외환은행에 입행해 강남기업영업본부장, PB영업본부장, 기업사업그룹 부행장보를 거쳤다. /김민지기자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 121억 벌금

LH발주 공사 입찰가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시설 토목공사에서 미리 짜고 입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4월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액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2011년 8월 공사액 456억원 규모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는 반대로 포스코건설이 미리 정한 투찰가를 제시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담합 결과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0%,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의 투찰률은 94.5%로 높게 나타났다. LH공사의 과도한 부채 누적에 건설사들의 담합도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과징금액은 포스코건설이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유주영기자 boa@

NH농협은행 새봄맞이 '신뢰회복 캠페인' NH농협은행 김주하(왼쪽) 은행장과 허권(오른쪽)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3일 광화문에서 시민들에게 화분과 꽃씨를 나눠주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캠페인은 최근 카드 사태와 관련한 대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것으로 3월 초 전 사무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증권사 실적난 여파 배당금 60%나 삭감

국내 증권사들이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난에 배당금을 60% 넘게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현금 배당을 결정한 6개 증권사의 2013 회계연도(2013년 4~12월) 결산배당 규모는 총 8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배당 총액 2143억원과 비교해 무려 1290억원(60.2%) 줄어든 액수다.

배당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삼성증권으로 84.7%(484억→74억원) 급감했다. 삼성증권의 올해 주당 배당금은 100원으로 시가 배당률은 1.2%에서 0.2%로 쪼그라들었다. 2년 연속 적자를 낸 현대증권의 배당 총액은 지난해 444억원에서 277억원으로 37.6%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62개 증권사의 당기순손실은 1098억원으로 10년 만에 대규모 적자를 냈다. /김현정기자

모바일카드 800만장 발급

'정보유출' 신용카드업계 생존 돌파구로 부상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전을 겪는 신용카드 업계에 모바일카드가 새 돌파구로 떠올랐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심카드는 314만 장 이상 발급됐고 앱형 카드는 477만 장을 넘어서는 등 모바일카드의 발급 건수가 800만 매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심형 카드는 2010년 하나SK카드가 선도 업체로 나서 지난 1월 말까지 104만 장을 발행했다. 뒤따라 2012년 8월부터 뛰어든 BC카드는 116만 장을, 유심형과 앱형을 동시 발급하는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는 각각 81만 장, 11만 장을 기록했다.

앱형 카드는 지난해 5월 첫 상품을 선보인 신한카드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153만 장 발급했고 롯데카드는 42만 매를 기록했다.

후발 주자인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도 각각 37만 장, 30만 장으로 잰걸음에 나섰다.

앱형과 모바일 결제용 안전결제(ISP)가 탑재된 국민카드 'K모션'의 경우 모바일 ISP 부분이 유심형과의 단순 비교를 어렵게 하지만 213만 건 발급으로 상당한 반응을 얻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카드 시장 성장을 위해 내년 집적회로(IC) 방식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단말기 교체 시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을 탑재하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국산차 2월 실적 달렸다

5대 완성차업체 일제히 판매 상승… 신모델 출시·수출 호조 겹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지난 2월 실적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완성차 업체들은 신모델 출시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나란히 판매 상승을 보였다.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면서 내수에서 전년 동월 대비 8.2%가 증가했고 해외 판매도 2.7% 늘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전년 동월보다 511대 줄었으나, 대신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1578대나 팔리면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부진을 충분히 만회했다.

기아차의 승용차 라인업은 전월 대비·전년 동월 대비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레이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가 판매 증가를 이뤘고, 모닝은 7165대의 판매를 기록했다. 반면 레저용 차(RV) 차종들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실적을 나타냈다.

한국GM은 다마스·라보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판매가 호조를 나타냈다. 특히 캡티바와 올란도, 트랙스 등 RV 차종의 판매가 두드러졌다. 가장 인기를 끈 모델은 스파크로 4745대가 팔렸다.

쌍용차는 전년 누계보다 30.8% 증가한 실적을 보이며 국내 업체 중 가장 돋보이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코란도 스포츠가 2157대, 코란도 C가 1612대 팔리면서 내수를 이끌었다. 수출에서는 뉴 코란도(코란도 C)가 2891대로 가장 많은 실적을 나타냈다.

르노삼성도 2월 내수와 수출이 전월보다 모두 증가했고 SM5와 SM3가 내수 실적을 주도했다. 디자인과 편의장비를 보강한 QM5 네오는 전월 대비 61.2%, 전년 동월 대비 234%나 증가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쉐보레 말리부 디젤과 현대차 신형 쏘나타 등이 출시되면서 내수 분위기가 더욱 살아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뱅앤올룹슨 무선스피커 '베오랩 18' 국내 출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뱅앤올룹슨' 매장에서 프리미엄 무선 스피커 '베오랩 18' 한국 시장 공식 론칭 기념 사진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 모바일랩 '올리고' 출시 LG CNS는 영어 교육 콘텐츠 전문기업 유캔스마트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 클라우드 모바일랩 서비스 '올리고(OLIGO)'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올리고는 태블릿 PC 대여부터 콘텐츠, AS까지 한번에 제공하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초기 투자비용, 관리 문제를 해결해준다. /LG CNS 제공

중소기업 절반 "올해 매출 늘 것"

전경련 1000개 업체 설문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심리로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매출액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국내 중소 제조업체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4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전망과 경영혁신 수요조사'에 따르면, 347개 응답 기업의 54.8%(190개 업체)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증가될 것으로 응답했다. '작년과 비슷하다'가 30.3%(105개 업체)였으며, '작년보다 줄어든다'는 14.9%(52개 업체)에 불과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은 올해 내수와 수출 전망에 대해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한다'(40.6%)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한다'(11.5%), '내수는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한다'(8.9%)가 뒤를 이었다. 수출을 하지 않는 내수 중소기업은 '내수 증가'(22.5%)가 '내수 감소'(7.5%)보다 15.0%포인트 더 많았다.

또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 회복과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진다는 기대심리가 높은 가운데, 대기업 물량 축소와 가계부채 증가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가 증가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경기 회복 심리 개선으로 인한 설비투자 증가'(48.6%)와 '정부의 규제 완화와 경기 부양 조치'(20.4%), '물가 안정,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 향상'(14.7%) 등을 내수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내수가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대기업 투자환경 악화로 국내 물량 축소·해외 생산 확대'(43.9%)와 '가계부채 증가·전세가 상승으로 소비심리 위축'(39.8%)을 내수 감소 요인으로 지적했다.

/김두탁기자

LG그룹 '4개 친족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

공정위, 고의성 여부 확인 결과따라 제재 방침

LG그룹이 친족이 운영 중인 4개 업체를 계열사 신고 때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LG그룹은 총수 일가(친족)가 운영하고 있는 ▲원앤씨 ▲지본 ▲세원정공 ▲형원이엔지 4개 업체를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단독이나 총수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계열사로 확인된 업체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사촌인 이욱진씨와 구명희씨 등이 51.5%에서 최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그룹은 지난달 공정위에 자진 신고한 4개 계열사에 대해 따로 계열 편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친족 분리를 신청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은 지난 2012년 말 계열사 일부를 합병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 현재 국내에서 7번째로 많은 총 6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LG그룹의 경우 그동안 친족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LG그룹에서 자진 신고함에 따라 계열사라는 게 확인됐으며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두산은 10년간 편입을 유예하는 결제유예제도에 따라 지난달 계열로 편입된 중앙대학교기술지주와 씨에이유생활건강을 계열에서 제외시켰다.

이를 제외한 지난달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1686개사로 전월에 비해 8개사가 감소했다.

동부, 금호아시아나 등 5개 집단이 총 5개사를 계열로 편입했고 롯데, 부영 등 9개 집단은 총 13개사를 계열에서 분리했다.

/김두탁기자 kimdt@

네이버 정규직 비율 2% 더 올리면 100%

네이버에 다니는 직원 100명 가운데 98명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80% 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네이버는 3일 전체 직원 1721명 중 정규직 비율은 98.1%(1689명)라고 고용 형태를 공시했다. NBP, 라인주식회사, I&S 등 네이버 자회사에도 전체 1549명 중 98.5%인 1525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사인 그린웹,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도 평균 99.3%의 높은 정규직 비율로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와 직원이 함께 믿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 형태 공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 형태 현황을 매년 3월마다 의무로 공시하는 제도로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2014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박성훈기자 zen@

해도 너무한 보조금 '영업정지'도 마케팅

지난달 114만건 번호이동… '이통 3사 징계' 전망이 부추긴 꼴

이동통신 시장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얼룩지고 있지만 대비책은 전무해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제외)는 114만9340건으로, 전월 대비 8만 건 이상 증가했다.

지난 2월 한 달간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도 4만1047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기준인 2만4000건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번호이동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달 시장에 과열된 보조금 대란 때문으로 보인다. 211대란, 226대란, 228대란 등 지난달 이통 3사 간 가입자 뺏기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여느 때보다 치열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이통사가 보조금 대란을 조장하며 마케팅 방안으로 활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 3사에 이달 중 영업정지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발단이었다.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은 1일이나 5일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이라며 막바지 보조금 폭탄을 살포한다고 홍보했다.

결국 이 기간 가입자 이동도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일정 및 수위는 막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부의 제재와 관련해선 이통사가 7일까지 소명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 일정은 이달 중순께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일정이 발표되면 또다시 이를 빌미로 보조금 폭탄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영업정지 기간 손실 만회를 위해 보조금이 대거 풀리기도 했다.

이처럼 끊임없는 보조금 경쟁과 관련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다. 단말기 유통법마저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시장 규제는 한계가 있고, 보조금을 통한 출혈 경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 정부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통과마저 무산되면서 보조금 대란이 자칫 장기화될까 우려된다"면서 "결국 피해는 늘 소비자나 영세업자일 뿐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 '응답하라! 아날로그!' 체험 손짓 3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문화센터 리뉴얼 오픈 기념 '응답하라! 아날로그!'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로 옛 교실 분위기로 꾸며진 문화센터 강의실에서 달고나, 종이인형, 옛날 게임기 등 추억의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연합뉴스

가스기술公 '복리비 왕국' 1인당 595만원

정부가 38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철퇴를 가한 이후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부의 20개 방만경영 기관 및 18개 부채 상위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확정 결과를 보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올해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595만원으로 38개 공공기관 중 1위가 된다.

가스기술공사의 복리후생비는 38개 부채·방만경영 기관의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인 290만원보다 2.1배 많고 38개 기관 중 꼴찌인 석탄공사(66만원)보다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설비 전문 기술회사로 직원 1100여 명의 평균 보수는 6717만원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 4위(919만원)였던 한국마사회는 373만원을 감축했음에도 38개 기관 중 2위로 올라섰다.

한국석유공사도 1인당 복리후생비를 694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삭감하기로 했지만 38개 공기업 중 순위는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기존에 1인당 복리후생비 1위(1306만원)인 한국거래소는 직원 1인당 비용을 859만원이나 줄여 447만원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6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유주영기자 boa@

'21세기 주택위원회' 16기 출범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3일 아파트 주부자문단 그룹 '21세기 주택위원회' 16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8개 시·도 월세가격 11개월 연속 하락세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초과 공급 영향으로 전국 월세 가격이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3일 지난달 8개 시·도 월세 가격이 전달보다 0.2% 내렸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각각 0.2%, 0.1%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서울(-0.2%), 경기(-0.2%), 인천(-0.3%) 모두 약세를 보였다. 다만 서울 강북 14개 구(0.0%)의 경우 대학가 신규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과 초과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요인이 혼재하며 11개월 만에 보합세로 전환됐다.

지방광역시 역시 부산(-0.1%), 대구(-0.1%), 광주(0.2%), 대전(-0.2%), 울산(0.1%) 등 전 지역에서 마이너스를 보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0.4%), 연립·다세대(-0.2%), 아파트(-0.2%), 단독주택(-0.1%) 순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월세 이율은 8개 시·도가 0.80%로 전월과 비교해 보합을 기록했고,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78%, 0.75%로 조사됐다. 광주·울산이 0.89%로 가장 높고, 서울 강남 11개 구가 0.72%로 가장 낮았다.

/박선옥기자

LH 올 5만6917가구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적으로 총 79개 단지, 5만6917가구가 입주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입주 물량 4만1820가구에 비해 36.1% 증가한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3만3271가구, 지방광역시에서 7952가구, 지방도시에서 1만5694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상반기 2만6738가구, 하반기 3만179가구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3만1861가구, 60~85㎡ 2만4089가구 등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98%를 차지한다. 85㎡ 초과는 967가구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주택이 2만4403가구, 10년 공공임대가 9077가구, 5년 공공임대가 402가구, 국민임대가 2만2255가구, 영구임대가 780가구다.

LH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반기에만 131% 늘어 봄 이사철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옥기자

아파트 특화설계 진화 계속된다

건설사들 업그레이드된 평면 등 후속단지 적용… 연타석 흥행 노려

앞서 분양한 단지에서 검증받은 특화 설계를 후속 단지에도 적용, 연타석 홈런을 노리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검증된 설계에 계약자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평면을 선보임으로써 수요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이달 경북 경산 신대·부적지구 1-2블록에 분양하는 '우미 린' 아파트에 지난해 광주전남혁신도시와 대구테크노폴리스에서 적용, 계약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던 대형 복도 팬트리와 가변형 벽체 등의 설계를 반영한다. 또 'ㄷ'자형 주방 설계로 수납과 동선의 효율을 높였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수납공간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형 복도 팬트리를 선보였는데 반응이 좋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설계특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거주하는 수요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9월 충남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에서 선보인 현관 창고를 이달 화성 동탄2신도시에 적용한다. 현관 창고는 대형 운동기구나 청소용품 등 부피가 큰 물건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수납공간이다. 이에 작년에는 일부 세대에만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발코니 확장 시 전 세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이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3월 분양하는 '돈암 코오롱하늘채'에는 코오롱글로벌만의 특화된 기술이 적용된 '칸칸' 수납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미 대구·평택 등에 공급한 코오롱 아파트에 이

경남기업이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에 선보일 현관 창고. 현관 창고는 작년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 일부 세대에 적용됐으며, 주부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 동탄2신도시에서는 전 세대(확장 시)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스템을 적용, 입주민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칸칸 수납 시스템은 단순히 물건을 넣어두는 '수납'의 개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주부들이 살림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개선해 눈길을 끈다.

㈜효성이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2지구 15블록에 분양하는 '남율2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3차'에는 1·2차에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1층 세대 지하 다락방 개념의 멀티룸이 다시 한번 등장한다. 지하 다락방은 입주민 취향에 따라 영화 감상실이나 서재, 아이 놀이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이미 검증을 받은 아이템을 적용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건설사가 자신들과 소통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품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아프리카·아시아 아이들에게 모자 보내요" 대우건설 임직원 가족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푸르지오밸리' 주택문화관에서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완성된 모자는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영유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봄바람 부는 주택시장

아파트 거래회전율 6.94% 지난해보다 1.03%P 상승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 회전율도 전년 대비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거래 회전율은 전국의 아파트 재고량 대비 실제 매매 거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전년 대비 1.03%포인트 상승한 6.94%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012년보다 1.82%포인트 높아진 5.89%로 집계됐다. 인천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6.72%의 거래 회전율을 보였고 경기 6.54%, 서울 4.5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전세가 비율이 높은 강북권의 거래 회전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성북구(5.96%), 금천구(5.46%), 은평구(5.44%), 종로구(5.43%), 동작구(5.35%), 도봉구(5.22%), 구로구(5.20%) 등은 전년 대비 평균 2%포인트 넘게 올랐다.

경기도는 미분양 적체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 대비 거래 회전율 상승폭이 컸다. 화성(7.88%), 고양(7.37%), 군포(7.06%), 용인(7.04%), 김포(6.62%), 광명(6.52%), 안양(6.38%), 파주(6.10%) 등은 평균 2.71%포인트씩 올랐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장기간의 시장 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2013년 국제기후기금(GCF) 사무국 입주 및 올해 9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거래량이 늘어났다. 2013년 인천 거래 회전율은 2012년 대비 2.18%포인트나 상승한 6.72%를 기록했다.

한편 지방은 수도권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7.99%의 거래 회전율을 보였다. /박선옥기자

전셋값 79주째 상승 분양전환 임대 '눈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7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가 전세난의 새로운 대안으로 눈길을 끈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다가 입주 5년 또는 10년 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전세와 내 집 마련이 동시에 가능한 셈이다.

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은 이달 중 충남 계룡시 엄사지구에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인 '계룡 파라디아'를 분양한다. 총 938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4베이, 3면 개방형 평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무건설은 충북혁신도시 B8블록에서 '충북혁신도시영무예다음 1차'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75~84㎡, 전체 691가구 규모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4베이 구조를 도입했다. 단지 바로 앞에 호수공원이 위치, 조망권을 갖췄다.

중흥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 RM-10블록에서 '중흥 S-클래스 리버티'를 공급하고 있다. 166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59~84㎡로 이뤄졌다.

LH는 이달 말 대전 죽동지구 A5블록과 논산 내동2지구 A1블록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죽동지구 A5블록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51~59㎡, 총 492가구로 구성된다. 내동2지구 A1블록 역시 10년 공공임대로, 전체 538가구 규모다. /박선옥기자

IT기기 쇼핑 달인들 "소셜커머스 클릭!"

노트북·태블릿 PC 등 기존 온라인몰보다 많게는 수십만원 저렴

지난 주말 소셜커머스 티몬 '가전·디지털' 카테고리의 클릭 수가 부쩍 늘었다.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 레티나'의 64GB 버전이 59만9000원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 제품의 애플 온라인 장터 공식 가격은 86만원이었고 오픈마켓에서 책정한 가격은 70만원대 후반이다. 티몬에서 사면 약 2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3일 기준 판매량은 270대이며 잔여 물량도 이틀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커머스에서 다루는 IT제품들이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에 관심 상품이 뜰 때까지 구매를 미루는 상황이다.

티몬·쿠팡 등 소셜커머스에 따르면 최신 노트북, 태블릿 PC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신학기와 같은 계절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들 업체의 가격이 기존 온라인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게 그 배경이다.

쿠팡에 올라온 노트북 가운데 레노버의 울트라 슬림북 'S415'를 보면 스펙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착한' 가격이 인상적이다.

AMD 쿼드코어 CPU, 1.6kg의 무게와 전면 8mm 두께, 4GB 메모리, 블루투스 4.0, 돌비 어드밴스드 오디오 등 빠지지 않는 부품과 매력을 갖췄음에도 가격은 39만9000원이다.

동급의 제품을 일반 온라인몰에서 사려면 40만원대 후반에서 50만원대 초반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1차 판매 물량은 2200대였지만 곧 바로 매진됐다.

구글의 레퍼런스 태블릿 PC '넥서스4'의 가격이 9만9000원(16GB)인 경우도 있다. 티몬이 진행하는 딜 중 하나로 리퍼 제품이긴 하지만 사실상 새 물건이다.

이 제품 역시 현재 온라인 가격이 25만원 선인 만큼 3배가량 싸게 살 수 있다.

소셜커머스가 이들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결국은 '속도'다.

특정일에 판매를 시작해서 일정 수량을 달성하면 거래를 종료하는 소셜커머스 비즈니스의 특성상 물건이 빨리 팔린다.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가장 큰 부담은 재고비용인데 이 부분에서 소셜커머스가 큰 역할을 해주는 셈이다.

소셜커머스는 전체 판매의 80%가 모바일로 이뤄질 정도로 스마트폰 거래 비중이 커 '입소문'도 더 빨리 퍼져 매진을 재촉한다.

티몬 관계자는 "성별·나이별 맞춤형 마케팅과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도 비결이지만 제품별·시즌별 특수한 상황에 맞는 단기 속도전에서 소셜커머스의 위력이 발휘된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데이터 플러스'로 LTE 더 즐기세요 KT 직원들이 신규 요금제 'LTE 데이터플러스'를 선보이고 있다. KT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부족해 추가로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LTE 스마트폰 고객을 위해 새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KT 제공

손목 위 헬스트레이너…불면증도 체크

꼼꼼 IT리뷰 - 핏비트 플렉스

핏비트는 체력 관리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브랜드다.

북미 시장 점유율 1위의 핏비트 브랜드가 올 초 우리나라에 진출한 가운데 대표 모델인 '핏비트 플렉스'를 사용해봤다.

이 제품은 손목시계처럼 차고 다니며 하루 운동량을 스마트폰과 연동해 측정할 수 있다. 고무 밴드처럼 생긴 이 제품은 손목에 가볍게 차면 된다. 무게는 13g으로 묵직한 느낌은 없었고 촉감도 괜찮았다.

핏비트 플렉스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내려받은 뒤 시작할 수 있다. 제품에는 동작 감지기가 있어 걸음 수, 이동 거리, 칼로리 소모량을 스마트폰에 띄워준다. 잠을 잘 때 손목에 착용하면 수면 패턴까지 기록해준다. 잠잘 때 뒤척임이 심하거나 불면증이 심한 이용자라면 수면 측정에 유용한 기능이다.

운동을 북돋는 동기부여 기능도 눈에 띈다.

제품에는 다섯 개의 작은 전구가 있어 하루 권장 운동량을 달성할 때마다 하나씩 불이 켜진다. 다섯 개 램프에 불이 모두 들어오도록 운동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었다. 핏비트를 쓰는 친구들끼리 운동량 경쟁을 하는 게임 기능도 재미있다.

다만 음식 칼로리 정보가 미국과 유럽 기준으로 된 점은 아쉬웠다. 핏비트는 한식 메뉴 정보를 조만간 추가할 계획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로지텍 모바일 스피커 출시

개인용 주변기기 전문기업 로지텍 코리아는 휴대성과 품질을 겸비한 모바일 스피커 '로지텍 X100'을 출시했다.

콤팩트한 사이즈와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로지텍 X100은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로 언제 어디서나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내장형 마이크를 갖춰 핸즈프리 통화를 할 수도 있다.

스피커 본체 상단의 버튼으로 간단히 볼륨 컨트롤을 할 수 있는 X100은 스트랩 홀을 탑재하고 있어 휴대가 편리하다. /박성훈기자

어마무시하게 리얼한

쏴리~

어마무시 한데

별그대 천송이 스티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별그대 라인 줄 쫙 섰네

드라마 PPL 노출 효과 국내 이용자 1000만↑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김수현·전지현의 이름값을 제대로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종영한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간접광고(PPL)로 노출된 '라인'의 인지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천송이(전지현)와 도민준(김수현)은 라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드라마 방영 이후 라인은 주요 앱 장터에서 다운로드 순위가 수직 상승했다. 하루 평균 60만~7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6일에는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3일 글로벌 앱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별그대' 방송 마지막 주인 지난달 26일과 27일 애플 앱스토어에서 라인은 국내 인기 무료 앱 순위에서 각각 11위, 14위를 차지했다. 같은 날 구글플레이에서는 국내 인기 무료 앱 12위, 10위에 올랐다.

네이버가 '별그대'에 라인 간접광고를 시작한 지난 1월 16일에는 앱스토어에서 81위, 구글플레이에서는 72위였다. 드라마에서 라인이 등장하는 동안 60~70위가량 순위가 오른 것이다.

네이버는 '별그대'를 소재로 라인 메시지를 다양한 이미지로 꾸미는 '스티커'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는 등 PPL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라인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중국 앱스토어 순위도 지난달 27일 9위로 상위권에 오른 상태다.

이 드라마는 동남아에 수출될 가능성이 커 라인을 사용하는 글로벌 고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라인은 지난달 기준 글로벌 3억4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전세계 안드로이드폰 60% '삼성 폰'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0대 중 6대는 삼성전자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갤럭시S3가 꼽혔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로컬리틱스는 올 2월 말 기준으로 제조사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이 전체의 6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최고급 제품인 갤럭시S 시리즈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제품군 별로는 갤럭시S3(15%), 갤럭시S4(10%), 갤럭시S2(4%), 갤럭시S(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점유율 2위에는 7%를 기록한 LG전자가 올랐으며 HTC(6%), 소니(5%), 모토로라(4%)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kmlee@

리복 신개념 러닝화 '지퀵' 타이어처럼 속도감 있네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리복은 신개념 스피드 러닝화 '지퀵(ZQuick)'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Z등급 고속 주행용 타이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지퀵은 아웃솔이 타이어처럼 절개돼 있어 빠른 움직임에도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홈이 들어간 아웃솔의 구조는 속도를 내거나 줄일 때 제어력이 뛰어나다. 또 신발의 발등을 감싸고 있는 고무 재질의 나노웹 소재는 달리는 동안 무게중심을 잡아줘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리복의 이나영 마케팅 이사는 "지퀵은 다양한 지형에서도 그 환경에 맞게 속도감 있는 러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설명했다. 리복의 새로운 러닝화 지퀵은 전국 리복 매장 및 리복 온라인몰(shop.reebok.c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격은 12만9000원이다. /박지원기자

체리쉬 '컬러 트렌드 존' 오픈

가구업체 체리쉬는 전국 매장에 올봄 유행할 색상을 활용한 '컬러 트렌드 존'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체리쉬가 선정한 트렌드 색상인 옅은 파스텔톤을 바탕으로 공간 연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해당 색상을 벽지에 적용하거나 패브릭 소품 등을 이용해 직접 연출해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온가족 뷰티체험 공간 "신나요!"

박준뷰티랩, 자녀 위한 타임스퀘어내 직업체험관·엄마 위한 강좌 중심 뷰티센터 오픈

박준뷰티랩이 영등포 타임스퀘어 어린이 직업체험관 '키즈앤키즈'에 '박준뷰티랩 헤어&메이크업관'을 열고 미래의 미용 꿈나무를 육성한다. 체험관 맞은편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 살롱'을 오픈해 엄마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지난 1월 문을 연 키즈앤키즈는 5~10세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박준뷰티랩은 이곳에 '뷰티랩 체험관'을 오픈, 아이들에게 메이크업·네일아트·헤어 스타일링 등의 체험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마네킹에 직접 헤어와 메이크업을 해주며 헤어 디자이너·메이크업 아티스트·네일 아티스트 등의 직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 한 엄마는 "평소 궁금해하던 메이크업 제품을 마음껏 써볼 수 있어 딸아이가 무척 좋아했다"며 박준뷰티랩 체험관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준뷰티랩 관계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키즈앤키즈 박준뷰티랩은 미래의 미용인을 육성하기에 좋은 장소로 손꼽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엄마·아이 위한 '아카데미 살롱'

이와 함께 지난 2월 오픈한 '박준뷰티랩 뷰티센터'는 일반 헤어숍이 아닌 미용 강좌를 중심으로 하는 살롱이다.

주부들이 직접 아이와 가족들의 머리를 손질해줄 수 있도록 '셀프 스타일링 홈케어'를 알려주는 곳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

특히 지난달 20일 진행된 뷰티 체험과 아카데미 교육 행사는 엄마와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중 네일아트 시간이 인기를 끌었는데, 아이들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손톱을 화려하게 물들이며 즐거워했다.

박준뷰티랩 영등포 뷰티센터의 전수정 본부장은 "이곳은 랩과 뷰티 클래스를 접목한 형태로 파마나 손질, 머리 말리는 방향, 집에 남아 있는 제품 활용법 등을 다양하게 알려준다"면서 "앞으로 어른은 물론 아이들이 미용 교육과 뷰티 체험을 할 수 있는 멀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덴마크 왕실 도자기 "페인팅 우아하죠?" 덴마크 왕실 도자기 브랜드 한국로얄코펜하겐은 3일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왕실 식기 '플로라 다니카'의 페인팅 시연회를 개최했다. 페인팅 명장 주디스 소렌슨(가운데)이 직접 페인팅한 도자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로얄코펜하겐 제공

화장품 수출 '온라인몰이 효자'

G마켓·이베이코리아 해외 판매상품 중 1위

국내 중소 판매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은 화장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를 통해 해외에 판매된 상품을 집계한 결과 화장품이 품목별 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2위는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용 액세서리, 3위는 생활용품, 4위는 컴퓨터 부품, 5위는 자동차 부품이었다. 카메라 부품(6위), 잡화(7위), 스포츠용품(8위), 산업용품(9위), TV·비디오·오디오 등 가전용품(10위)이 그 뒤를 이었다.

수출을 주도한 화장품은 중소기업 상품이 대부분으로 스킨케어, 메이크업, 모발 관리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BB 크림 등이 포함된 스킨케어 상품은 전년대비 94%나 성장하면서 화장품 카테고리 성장을 주도했다.

휴대전화는 전년 대비 판매가 330% 늘어난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성장을 견인했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DIY 인테리어용품이, 컴퓨터 카테고리에서는 모니터·PC 부품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지원기자

의류·소품 중 한곳만 화려하게

하객 패션 스타일링 요령

따뜻한 봄과 함께 다가온 결혼 성수기 3월이다. 여성들은 청첩장이 하나둘 모일 때마다 늘어가는 고민이 있다. 축의금보다 더한 걱정, 바로 결혼식 패션이다. 여성들에게 결혼식장은 순백의 신부 뒤에서,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스타일리시한 패션 감각을 뽐낼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패션 전문가들은 결혼식 하객 패션으로 심플하면서도 다양한 멋을 연출할 수 있는 원피스를 추천한다.

◆봄 내음 풍기는 화사한 원피스

봄을 맞아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다면 컬러나 프린트 중 한 가지만 포인트를 줘 과하지 않게 연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번 봄 시즌 트렌드로 부상한 플라워 프린트는 여성스러운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원피스를 입는다면 단정한 블랙 색상의 재킷을 매치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좋다. 또한 파스텔 컬러가 들어간 원피스를 입는다면 귀고리나 팔찌 등의 액세서리를 활용해 화사함을 극대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원피스가 화사하다면 구두는 비교적 심플한 모노톤으로 매치하고 뒷면에 작은 리본이 달린 제품이면 포인트를 줄 수 있다.

◆프로의 시크함이라면 심플한 원피스

시크하고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원한다면 심플한 원피스로 연출하는 것이 좋다. 원피스가 블랙이나 네이비 등의 어두운 컬러에 디테일이 없는 타이트한 핏이라면 허리 라인을 자연스럽게 살린 관능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연출된다.

심플한 원피스에는 체인이 굵거나 펜던트가 큰 액세서리도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통 크리스털의 볼드한 주얼리는 격식을 갖춘 스타일에 럭셔리한 이미지를 가미할 수 있다. 또한 어두운 색상의 원피스는 컬러감이 돋보이거나 광택의 반짝임이 가미된 구두와 매치하면 한층 더 감각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브라질로 짜릿한 '월드컵 여행' 따봉!

한국팀 경기 보고 남미 관광…투어피디아 '월드컵 패키지' 등 예약 손짓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모든 시선이 오는 6월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관광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며 남미 지역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20~40명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가 등장하고 있다. 월드컵의 함성을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투어피디아 '8일 상품' '11일 상품'

먼저 투어피디아가 '브라질 월드컵 패키지'를 선보였다. 에미레이트항공을 이용하는 '11일 상품'과 카타르항공을 이용하는 '8일 상품'이 있으며 두 패키지 모두 우리나라의 2·3차전 경기 관람과 브라질 관광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전 일정 동안 5성급 또는 4성급 호텔 이용이 가능하고 리우데자네이루 예수 그리스도상(사진)과 이구아수 폭포 등 브라질의 주요 관광지를 모두 돌아보는 일정이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투어피디아는 현지 여행정보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브라질 월드컵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도시와 연계된 여행정보도 소개하고 있다.

◆특식 넘치는 롯데제이티비 상품

롯데제이티비 역시 '롯데제이티비와 함께하는 축구경기 관람 패키지'를 준비해 국가대표팀 응원에 나섰다.

▲1차+2차+3차 축구경기 관람(12박14일) ▲1차+2차 축구경기 관람(10박12일) ▲2차+3차 축구경기 관람(8박10일)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는 모두 에미레이트항공을 이용하는 일정으로 이뤄졌으며 세 패키지 모두 슈라스코(고기 뷔페)와 현지식 뷔페 등 특식 10회를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상파울루 근교 관광을 포함해 전 일정에 가이드 팁이 포함돼 있다.

◆내 스타일 맞춤 인센티브 상품도

이와 함께 비욘드코리아도 인센티브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해 판매를 시작했다. 각 경기 지역의 3~4성급 호텔 블록을 확보했으며 지역별로 가이드와 차량을 계약해 관광과 축구 관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끝냈다. 또 20명 이상 규모의 단체 예약일 경우에는 수수료 협의도 가능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낭여행객과 코치 투어도 마련했다.

이외에 라틴코리아는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춘 맞춤형 일정 상품을 구성했으며 오투어 역시 인센티브 단체를 중심으로 고객들의 문의를 꾸준히 받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현대백화점 '와인 페어' 9일까지 진행 3일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진행된 와인페어에서 고객들이 다양한 와인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9일까지 압구정 본점 등 전국 13개 점포에서 '2014년 제1회 와인페어'를 개최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스탠포드 호텔 '뉴욕 숙박권' 쏜다

'글로벌 패키지' 한정 판매 서울 투숙객에 경품 기회

스탠포드 호텔 서울은 스탠포드 호텔 그룹의 체인 호텔인 스탠포드 호텔 뉴욕과 스탠포드 호텔 서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탠포드 서울&뉴욕 글로벌 패키지'를 오는 5월 31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패키지는 '서울&뉴욕 글로벌 패키지 Ⅰ'과 '서울&뉴욕 글로벌 패키지 Ⅱ'로 구성돼 있다.

패키지 Ⅰ과 Ⅱ의 기본 구성 내용은 객실 1박, 조식 뷔페 2인, 수영장·체육관(GYM) 2인 무료 이용, 사우나 50% 할인 서비스 등이며 패키지 Ⅰ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스탠포드 뉴욕 숙박권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패키지 Ⅱ에는 스탠포드 호텔 뉴욕의 스탠다드룸 객실 1박, 컨티넨탈 조식 2인이 추가로 포함돼 있다.

패키지 사용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가격(세금 별도)은 패키지 Ⅰ이 16만원, Ⅱ가 27만원이다. 문의: 02)6016-0001 /김학철기자

화이트데이 '로맨틱 1박2일' 선물할게

호텔 '스위트 패키지' 봇물

명품 호텔들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최고의 추억을 안겨줄 선물을 준비했다.

먼저 머큐어 서울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이 14일 '스위트 화이트데이 패키지' 2종을 준비했다. 패키지 1은 로맨틱한 저녁 식사와 스탠다드 객실 1박, 사우나·피트니스 2인 이용권을 포함한 패키지이며, 패키지 2를 이용하면 창 밖으로 아름다운 강남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슈페리어 객실에서의 1박과 레드 와인 1병, 치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도 '마이 스위트 하트 패키지'를 14일 하루 동안 선보인다. 슈페리어 객실에서의 1박과 모엣샹동 샴페인 1병, 초콜릿 옷을 입힌 딸기로 둘만의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수영장 및 피트니스 센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역시 로맨틱한 화이트데이를 보내고자 하는 커플을 위한 객실 패키지 '베리 베리 스위트 화이트데이'를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며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은 41층에 위치해 탁 트인 전망과 반짝이는 불빛들로 환상적인 전망을 선사하는 피스트 레스토랑에서 '로맨틱 다이닝@피스트'와 '화이트 데이 뷔페@피스트'를 마련했다.

또 서울 양재동의 더케이서울 호텔은 14일까지 뷔페 레스토랑 더 파크와 로비 라운지에서 20%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위트 화이트데이 프로모션'을, 롯데호텔은 14일과 15일 이틀간 클럽 플로어 디럭스 룸에서의 1박과 클럽 라운지 2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화이트데이 패키지를 준비했다. /황재용기자

제주항공 벚꽃시즌 일본행 특가

탑승기간 10일~4월말

국내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이 벚꽃 시즌을 맞아 일본 4대 도시의 왕복항공권을 특가 판매한다.

항공권 탑승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특가 운임은 유류할증료 및 공항 이용료 등을 포함해 ▲인천~도쿄(나리타) 22만3600원 ▲인천·김포~오사카 20만8100원 ▲인천·김포~나고야 18만3100원 ▲인천~후쿠오카 18만6100원부터다.

항공권 예매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 모바일 웹사이트(m.jejuair.net),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또 제주항공은 모바일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예매자 전원에게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국제선 1만원 할인 쿠폰도 증정할 예정이며 예매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정혜인기자

봤어? 파스타 로맨스·스니커즈 좀비

식품업계, 감성 또는 충격 '동영상 마케팅' 바람

장기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조금이라도 더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치열한 홍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광고 방법 가운데 짧은 시간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제품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과거 영상 광고는 천편일률적으로 제품의 장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최근 영상 광고는 고객 감성에 호소하거나 유튜브 망을 이용한 관찰형 리얼리티 기법까지 동원되면서 다양화되고 있다.

◆식품업계 광고 속 '감성 마케팅'

업계 전반에서 제품의 원재료나 함량, 성분이 아닌 '감성'을 내세우는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수많은 브랜드 사이에서의 비교와 선택에 피로를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마음'을 유혹하는 감성적 콘셉트의 식품업계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백설 토마토 파스타 소스의 경우 올해 '파스타 소스=로맨스'를 키워드로 하는 감성 마케팅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tvN 인기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3' 제품 간접광고(PPL)를 통해 김소연과 성준의 커플 쿠킹 장면을 더욱 로맨틱하게 연출했다.

서울우유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광고는 가족 간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표현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 '1등급A 우유' '전용목장 우유' '제조일자' 등 기능적 내용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행복'을 핵심으로 한 감성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광고는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표현하고 '우유는 행복입니다'라는 카피로 아이들의 눈물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유도한다.

◆'관찰형 리얼리티' 광고 국경초월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들은 '관찰형 리얼리티'가 대세다. '리얼 버라이어티'보다 더욱 리얼해진 이 관찰형 리얼리티는 미리 짜인 각본 없이 제작자들이 출연자들의 행동을 충실하게 관찰한다. 대표 작품으로 지난해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아빠! 어디가?'를 비롯해 김병만에게 SBS 연예대상을 안긴 '정글의 법칙' 등이 있다.

이런 트렌드는 기업들의 홍보물도 반영되고 있다. 요즘 바이럴 영상 제작에서 큰 인기를 모으는 것은 관찰형 리얼리티다. 재미있는 혹은 충격적인 상황을 만들어놓고, 기업들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스니커즈가 선보인 좀비 변신 영상이 화제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 대학교.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던 학생들이 거울을 보고는 하나같이 놀라며 뒷걸음질을 친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순식간에 좀비로 변했기 때문.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지 한 달도 안 돼 30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노스페이스의 북극한파 몰래 카메라도 인기다. 거울이 탈의실에 있다는 점원의 설명에 다운재킷을 입고 탈의실에 들어가지만 눈 덮인 북극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 영상은 단시간에 1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끄는 데 성공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시니어 전용제품 코너 필요

글로벌 고령화 시대 맞춰 쇼핑·유통환경 개선할 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부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사회 유통 환경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계산대 설치와 전용 판매 코너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닐슨은 최근 전 세계 60개국 3만 명의 온라인 패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고령화'에 대한 주제로 조사를 벌였다. 소비자들의 노년의 삶에 대한 태도 및 시니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통 환경과 제품,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내 소매점 등 쇼핑시설에서 시니어 소비자들을 위해 더욱 보강돼야 하는 서비스나 편의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계산 시의 긴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고령자·장애인 전용 계산대'(6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시니어 전용 제품 판매 코너(59%) ▲전자 쇼핑 카트(59%) ▲쇼핑 물품을 차량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55%) ▲고령자·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넓은 쇼핑 통로(53%) 등을 꼽았다. 결국 고령화시대에는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의 쇼핑 동선과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주는 서비스와 편의시설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니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나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고령자·장애인 접근성이 용이한 레스토랑'(75%), '제품 영양 성분이 더욱 읽기 쉽게 표기된 식료품 포장'(72%), '읽기 쉬운 제품 라벨'(71%), '시니어 소비자들의 영양 섭취를 충족시키는 식료품'(66%)이라고 답했다.

/정혜인기자

연아도 "화이트데이에는 맥심 화이트 골드" 동서식품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전달하는 '화이트데이에는 맥심 화이트골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 '하루여행' 출시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가 봄을 맞이해 '하루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하루여행은 다양한 당일여행 코스로 돼 있는데 특히 3월에는 대마도에서 해수 천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히타카츠 온천 투어'가, 4월에는 조선통신사 유적지 등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이즈하라 버스 투어'가 준비된다.

또 부산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 유명한 통영의 장사도와 명물 케이블카 투어를 묶은 '장사도·통영 케이블카 코스', 군항제 기간에 맞춘 '진해벚꽃 당일 투어' 등이 있다. 더불어 부산의 명소 및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시티투어 코스'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황재용기자

수제소시지·돈가스 가격이 먹음직해!

강강술래 알뜰외식 이벤트 온라인·전화주문 고객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뜰한 외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이번달 말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 신상품 수제 모듬 소시지(385g·4세트)를 구매하면 21% 할인된 가격인 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릿살로 만든 이 소시지는 청양고추·카레·불고기·채소·마늘 등 5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통 등심돈가스(720g·3팩스)와 모짜렐라돈가스(720g·3팩스),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도 각각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강강술래 신림점은 주중에 방문한 고객이 한우 스페셜·모둠구이·양념등심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제공하는 '한우축제'를 이달 28일까지 벌인다. 이와 함께 한우불고기 포장 상품(500g·2팩)을 구매하면 1팩(500g)을 덤으로 준다.

상계점은 오는 13일까지 소고기류를 시킨 고객에게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류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각각 주문한 인분 수만큼 포장해준다. 시흥점도 오는 14일까지 주중에 돼지양념구이를 먹은 고객들에게 인분 수만큼 포장해서 별도로 제공한다.

한편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은 이번달 말일까지 이벤트란에 신청 글을 올리면 '춘향전'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 뮤지컬 '미소' 티켓(1인 2매)을 받을 수 있다.

/김학철기자

국민 걸그룹 꿈꾸는 레이디스 코드

'2013년 유일한 생존 걸그룹' 가요계 관계자들이 5인조 여성그룹 레이디스 코드(애슐리·리세·은비·소정·주니)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해 30여 팀의 걸그룹이 데뷔했지만 대중의 관심을 받고 활동을 지속하는 팀은 손에 꼽을 만하다. 그러나 이들은 예외다. 변화무쌍한 활동에 신인왕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가사 슬픈데 노래는 신나 반전 매력에 빠지실걸요~

리세·소정·은비·애슐리·주니(아래 중간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밴드 연주 곁들인 '소 원더풀' 발표… 복고에 여성미도

데뷔 1주년… 신인상 트로피 받는 순간 믿어지지 않아요

올 목표 단독 콘서트·CF 3개… 우린 욕심쟁이 호호호

◆'예뻐 예뻐' 6개월째 인기몰이

데뷔곡 '나쁜 여자'로 묵직한 뮤지컬 퍼포먼스를 선사했던 이들은 6개월 만에 발표한 '예뻐 예뻐'로 완벽히 이미지 변신을 했다. 이 곡은 공개 6개월째에 접어든 현재까지 음원차트에서 순위가 상승하는 이른바 '역주행' 현상을 보이며 장기간 인기를 얻고 있다.

레이디스 코드만의 색깔이 본격적으로 묻어난다는 평과 함께 멤버들의 개성도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활동을 중단한 원더걸스의 뒤를 이을 그룹이라는 호평도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영광이라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롤모델인 선배님들과 비교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국민 걸그룹이 바로 우리 꿈이죠."

데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세 차례 앨범을 발표하는 왕성한 활동을 해온 이들은 휴식을 원하기는커녕 지친 기색도 보이지 않고 무대를 갈망하고 있다.

"'예뻐 예뻐'는 활동이 끝날 때쯤 돼서 반응이 좋아져서 무척 아쉬웠어요. 활동이 끝난 뒤에 MBC '무한도전' 응원 특집에 우리 노래가 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데요. 그래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퍼포먼스와 노래의 특징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엄지손가락 안무 따라하기 쉬워

욕심은 곧바로 새 앨범 활동으로 이어졌다. 데뷔부터 함께 작업해온 프로듀서 슈퍼 창따이가 만든 신곡 '소 원더풀'을 들고 나왔다. 기존 아이돌 음악에서 느낄 수 없던 펑키함과 경쾌한 그루브가 인상적인 밴드 연주가 곁들여진 곡이다.

"레트로 펑키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복고적인 느낌만 담은 게 아니라 한층 여성스러워진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막내 주니가 올해 성인이 된 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 그 이상을 전하려고요."

가사에는 '나를 떠났지만 여전히 내겐 멋진 남자'라는 이별한 여인의 심경을 담았다. 안타까운 내용의 노랫말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안무가 이번 곡의 특징이다.

"가사는 슬픈데 통통 튀는 퍼포먼스로 반전 매력을 전하죠. 엄지손가락을 활용한 다섯 가지 종류의 포인트 안무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소중한 순간과 포부

데뷔 1주년을 맞은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신인상 수상을 받았을 때다. '가온차트 어워드'와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걸그룹으로는 유일하게 각각 신인상을 받았다.

"데뷔 초 인터뷰를 하면 '신인상을 타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트로피를 손에 쥐는 순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한 기억이 한 번에 사라졌죠. 이제는 우리끼리 뭉친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멤버는 최근 한자리에 모여 올해 이루고 싶은 새로운 목표를 큰 종이 위에 적었다.

"CF 3개 찍기, 팬카페 회원 수 1만 명 돌파하기, 단독 콘서트 열기, 해외 무대 서보기,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하기, 음악방송 1위 하기…. 7개 정도 더 있는데 이거 먼저 이룬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우리 너무 욕심 많나요. 후훗."

디자인/박은지

열애설 소이현·김형준 "친구일 뿐"

배우 소이현(사진 왼쪽)과 김형준(오른쪽)의 열애설이 제기됐다.

소이현과 김형준은 지난 2012년 드라마 '자체발광 그녀'에 함께 출연한 뒤 핑크빛 소문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사람의 기획사는 모두 열애설을 부인하고 있으며 친한 친구 사이라고 일축했다.

김형준은 SS501 출신으로 지난 2005년 데뷔한 뒤 뮤지컬과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변신했다. 현재는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에서 한태경 역으로 출연 중이다.

소이현은 2001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출전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해 드라마 '때려' '노란 손수건' '부활' '청담동 앨리스' '후아유' 등에 출연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현재는 오는 5일 첫 방송되는 SBS '쓰리데이즈'에 이차영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악녀 본능' 손여은 떴다

'세결여' 새 엄마 맡아 철면피 연기 호평… 드라마 인기 이끌어

배우 손여은(사진)이 주연보다 사랑받는 악녀로 안방극장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SBS 주말극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이하 '세결여')에서 새엄마 한채린 역을 맡은 손여은은 극 초반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시청자의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정태원(송창의)과 재혼해 딸 정슬기(김지영)를 키우고 있는 한채린은 지난 23일(30회) 의붓딸과의 갈등을 알게 된 정태원의 이혼 요구에도 철면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31·32회) 방송에선 딸 정슬기에게 손찌검까지 하면서도 "다 거짓말이다. 슬기는 고자질쟁이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기도 하고 되레 "소송할 거예요"라고 하는 극악 캐릭터로 시청자의 공분을 샀다.

특히 요조숙녀의 얼굴을 하고 시어머니 최여사(김용림)와 시누이 정태희(김정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내는 얄미운 행태는 악역 연기에 방점을 찍는다.

이에 손여은은 "한채린은 '세결여'에 꼭 필요한 존재다. 자라온 환경과 주위에서 만들어지는 상황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행동과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악녀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세결여' 인기의 힘은 손여은에게서 비롯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 그를 향한 시청자의 관심은 높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게시판에 "가면이 벗겨졌다. 속이 다 후련하다" "소송까지 얘기하다니 뻔뻔하다" 등 손여은의 악행이 드러난 데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그의 연기를 극찬하고 있다.

손여은도 "처음엔 한채린이 차분한 캐릭터인 줄만 알았는데 극이 진행될수록 변해가는 모습을 맞닥뜨리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누구보다 채린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대한 현실성 있게 표현하고 싶다"고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세결여'는 지난 2일 18.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크루셜스타와 호흡맞춘 소진

새 싱글 '너에게 주고싶은 세 가지' 보컬 참가

걸그룹 걸스데이의 소진(사진 왼쪽)이 힙합 뮤지션 크루셜스타(오른쪽)와 호흡을 맞춘다.

소진은 최근 크루셜스타의 신곡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의 객원 보컬로 참여해 녹음을 마쳤다. 10일 출시될 크루셜스타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는 가수 박혜경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으로 소진의 감미로운 보컬이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크루셜스타는 지난 2008년 힙합 레이블 '소울컴퍼니'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힙합 뮤지션이다. 보컬·랩·프로듀싱 능력과 함께 훈훈한 외모까지 갖춘 힙합신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또 최근 중견 화백 박항률의 차남으로 밝혀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최근 걸그룹 씨스타의 소유와 힙합 뮤지션 정기고의 '썸'이 트렌드를 반영한 달콤한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로 큰 인기를 얻은 데 이어 이번 곡이 걸그룹과 힙합 뮤지션이 결합한 러브송으로 인기를 이어갈 지도 주목된다. /김지민기자 langkim@

선미 섹시 카리스마 제대로 먹혔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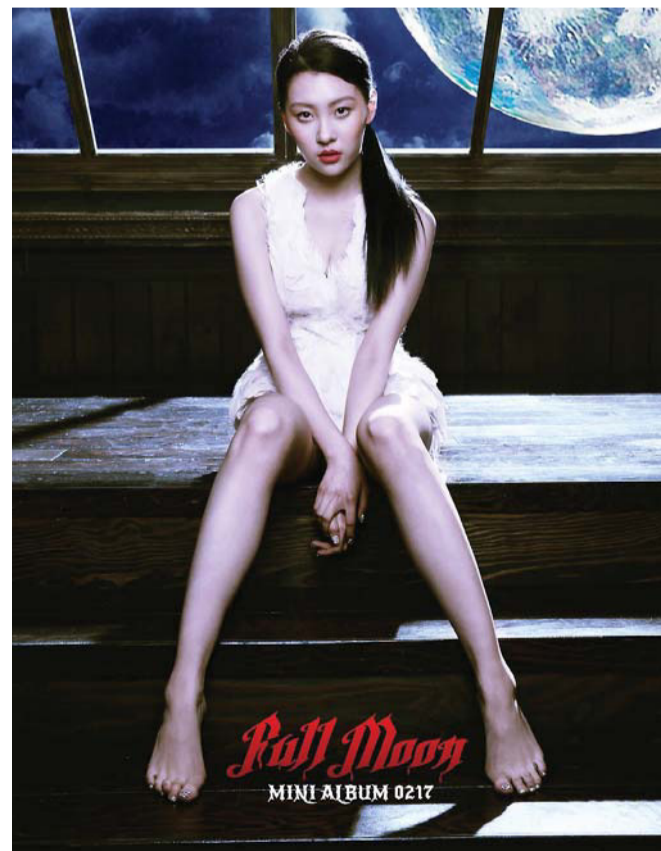
타이틀곡 '보름달'로 솔로 데뷔 첫 1위… "마음 벅차다"

최고 인기를 누리던 여성 그룹 원더걸스를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 선미(사진)가 가요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원더걸스를 떠난 지 3년7개월 만이던 지난해 8월 '24시간이 모자라'로 컴백을 알린 뒤 지난달 17일 자신의 두 번째 앨범 '풀문'의 타이틀곡 '보름달'로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이는 과거 원더걸스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섹시 콘셉트로 팬심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맨발 퍼포먼스를 선보인 '24시간이 모자라'에 이어 이번에는 뱀파이어로 변신했다. 파격적인 소파 안무를 비롯해 선미의 황금 비율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보디커브, 그리고 선미의 트레이드마크인 맨발 안무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무대 위 넘치는 자신감은 물론 퍼포먼스에도 선미만의 색깔이 녹아들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는 컴백 일주일 만에 나타났다. 지난 2일 SBS '인기가요'에서 정상에 오르며 솔로 데뷔 후 첫 1위를 차지했다.

선미는 "이렇게 큰 사랑 속에 1위를 하게 돼 너무 마음이 벅차다. 저 선미와 함께 달려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늘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린다"며 벅찬 소감을 전했다.

선미는 음악 방송을 통해 활동을 이어간다. /양성운기자 ysw@

키·우현 유닛 투하트 '빈티지 매력'

새 앨범 10일 발매 예정

그룹 샤이니의 키(사진 오른쪽)와 인피니트 우현(왼쪽)이 유닛 투하트를 결성해 10일 앨범을 발매한다.

투하트는 3일 공식 홈페이지에 앨범 콘셉트 사진 두 장을 최초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엔 1980년대 빈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장난기 넘치는 두 사람의 표정이 익살스러운 느낌으로 담겨있다. 그들은 또 다른 사진에서 롤러스케이트와 가운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의상을 입고 있어 앞서 샤이니와 인피니트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모습을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인피니트 콘서트 '원 그레이트 스텝 리턴즈'에서 우현이 투하트 결성을 언급해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키와 우현은 투하트 유닛 결성 전부터 1991년생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유닛 결성에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효진기자

2014.3.11 1차 TICKET OPEN

2014.4.15~6.29 BBC아트센터 | BBC홀

김봉환 서영주 김법래 엄기준 에녹 박성환 손준호 Key 박형식 주아 김아선 가희 오소연 외

Book by IVAN MENCHELL, Lyrics by DON BLACK, Music by FRANK WILDHORN

프로듀서 김병석,김선미 | 연출 왕용범 | 음악감독 이성준 | 안무 홍유선 | 무대디자인 Tobin Ost , 서숙진 | 조명디자인 Michael Gilliam, 민경수 | 음향디자인 권도경 | 분장디자인 김유선 | 의상디자인 김지연 | 영상디자인 Aaron Rhyne, 박준 | 소품디자인 임희정

투자 하나투어 제작 CJ E&M (주)엠뮤지컬아트 협찬 LOUN.G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하나Ticket 1566-6668 CJ E&M Ticket 1588-0688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J E&M Ticket 1588-0688

Bonnie and Clyde is presented through special arrangement with Music Theatre International (MTI). All authorized performance materials are also supplied by MTI. 421 West 54th Street, New York, NY 10019 USA, Phone: 212-541-4684, Fax: 212-397-4684 www.MTIShows.com

bonnieandclyde.co.kr

소설가 꿈꾸는 고딩 디오

'괜찮아, 사랑이야' 캐스팅

그룹 엑소의 디오(사진)가 SBS 새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가제)에 캐스팅됐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지난해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호흡을 맞춘 노희경 작가와 김규태 PD가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하는 작품이다.

오는 7월 방영 예정인 '괜찮아, 사랑이야'는 정신과 의사와 추리소설 작가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의학 드라마로 자신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사는 현대인들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와 감동으로 풀어내는 로맨틱 멘털 클리닉 드라마다.

현재 조인성과 공효진이 주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디오는 한강우 역으로 캐스팅됐다. 한강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엄마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소망을 가진 고등학생 소설가 지망생 캐릭터다. /김지민기자

엠넷 '트로트 엑스'에 유세윤·아이비 합류

오는 21일 방송 예정인 엠넷 '트로트 엑스'에 유세윤(사진 오른쪽)과 아이비(왼쪽)가 최종 합류하며 8명의 출연진이 모두 확정됐다.

아이비는 "타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무대를 선보인 적이 있다"며 "그때 트로트가 깊이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세윤은 "나이가 들수록 트로트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는다"며 트로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앞서 공개된 출연진 태진아·설운도·박명수·박현빈·홍진영·뮤지 등과 함께 일명 '트로듀서(트로트 프로듀서)'로 활약하게 됐다. 국내 최초 트로트 버라이어티쇼 '트로트 엑스'는 8명의 트로듀서들이 타 장르 가수, 일반인 참가자와 팀을 꾸려 새롭게 재해석된 트로트 음악으로 다른 팀과 경쟁을 펼치는 신개념 음악 프로그램이다. 연출은 엠넷의 히트 메이커 김태은 PD가 맡았다. /김지민기자

2NE1 "섹시 디바란 이런 것"

월드투어서 개성·카리스마에 여성미까지 '물씬'
'초콜릿 복근' 산다라 박 180도 변신등 4인4색 매력

2NE1이 새 앨범 '크러시' 발매와 함께 한층 성숙해진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지난 2일 2NE1은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올 오어 나싱(AON)' 서울 공연을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공연에서 멤버들은 지금까지 이어온 2NE1만의 개성과 카리스마는 물론 여성미까지 더해 섹시 디바의 새로운 면모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산다라 박은 탄탄한 복근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어 기존의 가녀린 이미지에서 완벽하게 탈피했다. 2층 객석에서도 뚜렷하게 보인 산다라의 초콜릿 복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산다라는 지난달 27일 네이버 라인 스타캐스트 온에어 인터뷰에서 "대기실에 매트를 깔고 복근 운동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그리워해요'의 뮤직비디오에서 파격 노출로 여성미를 과시했던 CL은 이날 공연에서 짧은 핫팬츠와 망사 스타킹의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섹시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아이 러브 유'를 부를 땐 남성 관객 네 명을 무대 위에 초청해 섹시 랩댄스를 선사해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다.

올해 만 스무 살로 성인이 된 민지 역시 그동안 숨겨왔던 섹시함을 과시했다. 공연 초반 민지는 상의 재킷을 벗어 던지고 짧은 민소매 의상 한 장만 걸친 채 히트곡 '캔트 노바디' 무대를 뜨겁게 장식했다. 시종일관 화려한 춤 실력과 향상된 가창력을 뽐내던 민지는 팬들에게 "안녕하세요. 민지예요~"라고 애교를 부리며 막내의 귀여움을 내보이기도 했다.

박봄은 이날 변함없는 각선미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NE1의 맏언니이자 4차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박봄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빼어난 각선미로 유명하다. 이날 박봄은 공연 내내 짧은 미니 원피스와 반바지를 입어 섹시한 매력을 어필했다. 또 공연 중간 프리토킹 시간에는 특유의 느릿느릿하면서도 애교 넘치는 말투로 대화를 이끌어나가며 입담을 과시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매끈 복근의 산다라 박, 탄탄한 허벅지의 CL,볼륨감 넘치는 박봄, 슬림 라인의 민지(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부천사' JYJ

자선경매 수익금 5000만원 어려운 이웃에 전달

그룹 JYJ(사진)가 팬들에게받은 사랑을 선행으로 되갚았다.

JYJ는 지난해 6월 '2013 JYJ 멤버십위크' 중 전시한 13점의 작품을 자선경매해 얻은 수익금 5000만원으로 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최근 전달했다. JYJ의 뜻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병원 등에 가장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기부했다.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보다 각 센터에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택했다"며 "아동복지센터에는 원목 사물함과 전자제품, 노인요양병원에는 환자용 침대, 난치병 장애아동 보호시설에는 전자제품과 가구를 전했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는 수술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팬들이 참여한 경매 수익금은 월드비전 재팬에 기부해 아동 보호를 위한 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다.

JYJ는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직접 만든 작품이 팬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자선경매의 수익금과 회사 직원들과 추가로 모은 기부금으로 물품 기부를 했다. 행복하게 연초를 시작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

소녀시대,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다정샷'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가 세계적인 팝스타 케이티 페리(사진 맨 오른쪽)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소녀시대는 2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린 라이브 이벤트 'U-익스프레스 라이브 2014'에 케이티 페리, 제이민, 카리 파뮤파뮤 등과 함께 출연했다.

공연에 앞서 페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녀시대는 "케이티 페리에게 많은 영향과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무대에 서게 돼 영광이고, 음악을 통해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이티 페리는 "그룹으로 활동을 한 적이 없어 소녀시대가 인상적이었다. 기자회견 시작 전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며 소녀시대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유순호기자

개그맨 손헌수 가수 데뷔

개그맨 손헌수(사진)가 가수로 데뷔한다.

그는 14일 디지털 싱글 '다녀오겠습니다'를 발표하고 가수로 활동한다. MBC '무한도전'에서 박명수의 전 매니저 정 실장으로 얼굴을 알린 정석권 대표가 앨범을 제작했고,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를 작곡한 이주호가 곡 작업을 맡아 '제2의 박명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정실장엔터테인먼트의 정석권 대표는 "손헌수는 개그,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멈출 줄 모르며 많은 재능을 지니고 있다"며 "음악에 뛰어난 감각이 있어 이번 앨범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노예 12년'의 스티브 맥퀸 감독과 공동 제작자인 브래드 피트와 데드 가드너, 프로듀서 제러미 클라이너와 앤서니 카타가스(오른쪽부터)가 3일 열린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오스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왼쪽 사진).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케이트 블란쳇이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다. /AP 뉴시스

스티브 맥퀸 흑인 감독 첫 작품상

86회 아카데미 시상식

'노예 12년' 3관왕… '그래비티' 7관왕 최다

전 세계 영화인들의 이목이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집중됐다. 시상식은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코미디언 겸 영화배우인 엘런 드제너러스의 사회로 열렸다. 2014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빛나게 한 수상 내용을 들여다보자.

◆ '노예 12년' 3관왕…브래드 피트 첫 수상

작품상은 '노예 12년'에 돌아갔다. 이로써 스티브 맥퀸 감독은 흑인 감독으론 처음 작품상을 수상하게 됐다. '노예 12년'은 이날 작품상을 비롯해 여우조연상·각색상까지 거머쥐며 3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영화에서 여성 노예로 열연한 루피타 뇽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루피타의 수상은 강력한 조연상 후보였던 '아메리칸 허슬'의 제니퍼 로런스와의 경합 끝에 이뤄져 이변으로 불렸다.

각색상도 '노예 12년'의 존 리들리에게 돌아갔다.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도 '노예 12년' 제작자로 첫 아카데미 수상에 성공했다. 그동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조연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였기에 이번 수상이 더욱 특별했다.

◆ '그래비티' 감독상 등 7관왕…최다 수상

'그래비티'는 감독상을 비롯해 음악상·촬영상·편집상·시각효과상·음향편집상·음향상까지 7관왕을 차지하며 아카데미 시상식을 '그래비티' 축제로 만들었다.

진행자인 엘런 드제너러스(오른쪽)의 제안으로 시상식장에 피자가 배달되자 브래드 피트(왼쪽)가 자발적으로 일어나 피자 배급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이날 감독상을 수상한 알폰소 쿠아론은 제71회 골든글로브·제67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제66회 미국 감독조합상·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감독상으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여우주연상과 남우주연상은 케이트 블란쳇과 매슈 매코너헤이에게 각각 돌아갔다. 남우주연상을 배출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남우조연상도 거머쥐었다.

◆ '겨울왕국' 2관왕…감동 무대

'겨울왕국'이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아 열풍을 이어갔다.

영화의 주인공 엘사의 목소리를 담당한 영화배우 겸 가수 이디나 멘젤의 '렛 잇 고' 무대도 시상식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의 폭풍 성량과 작품 하이라이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화려한 무대 연출은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에 충분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애니매이션 '서울역'에 류승룡·심은경 캐스팅

남녀 톱 흥행 배우가 애니메이션으로 뭉쳤다.

'돼지의 왕' '사이비' 등으로 화제를 모은 연상호 감독의 신작 '서울역'에 류승룡(사진 왼쪽)과 심은경(오른쪽)이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서울역'은 한 명의 노숙자로부터 시작된 이상 증상이 일대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도시 전체를 아비규환으로 몰아가는 재난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광해, 왕이 된 남자' '7번방의 선물' 등으로 연속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류승룡과 '수상한 그녀'로 여배우 주연 영화 최고 흥행 기록(800만 명)을 세운 심은경이 뭉쳐 영화계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또 '배우는 배우다'로 영화계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엠블랙의 이준이 출연한다.

심은경은 가출 청소년 딸, 류승룡은 딸을 찾기 위해 서울역 일대를 헤매는 아버지, 딸을 찾는 아버지를 돕는 남자친구 역을 맡는다.

연상호 감독은 '돼지의 왕'이 36개국에 소개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본격 사회 고발 애니메이션 '사이비'로 또 한 번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받았다.

매 작품마다 한국 사회상을 냉철하게 반영한 충격적인 소재로 극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던 연 감독은 "2006년부터 기획해온 작품인데 드디어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늘 주목해왔던 배우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

당신이 지닌 에너지 고귀하다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지미 넬슨은 영국의 사진작가다. 이 작가의 활동은 전 세계 오지, 사라져가고 있는 35개 부족의 거주지에서 이뤄진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원시 부족들의 삶을 관찰하고,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기운을 사진에 담아내는 게 그의 삶이다. 그의 사진은 태초의 힘과 인간의 순수성을 지녔다. 누구를 흉내 내거나 문명에 의해 습득된 것이 아닌, 인류가 스스로 갖고 태어난 고유한 존재 그 자체를 품고 있다. 그는 '그들은 전통과 순결함, 긍지의 최대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며 사진 속 에너지를 설명했다.

릭 오웬스는 2014 S/S 컬렉션에서 런웨이를 걷는 모델 대신에 댄서들로 작품을 선보였다. 강렬한 비트의 음악이 흐르고 체형이 제각각인 댄서들이 무대 위로 걸어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원시 부족의 여성 전사를 기본 테마로 구성한 컬렉션인 것을 감안해도 파격적 무대였다. 주술적 의미를 담은 신비스러운 동작과 의식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는 강인한 여성을 표현했다.

얼마 전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김치라는 산물의 가치보다 김장이라는 문화의 가치가 훨씬 높다는 평가다. 김장은 공동체 생활의 핵심으로 존재했고, '품앗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구성원 간의 소통과 그 과정에 대한 가치를 품고 있다. 한반도라는 지역 안에서 존재했던 인류가 만들고 지녔던 사상과 행위의 결정체 중 하나인 것이다. '김장, 메이킹 앤드 셰어링 김치(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라는 문구는 아름답다.

'동유럽의 기적'으로 불리는 슬라예보 지젝의 철학에 주목하고, 최진석 교수의 인문학 강의에 몰두하는 시대다. '꽃보다 누나'에서 배우 윤여정씨는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예순일곱 살이 처음이야'라며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한 두려움과 진정을 얘기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가진 존엄성이 자리한다. 사회가 시대가 어떻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절대 가치. 오랜 시간 자본주의라는 경제 이데올로기, 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떠밀려 폄하됐던 고귀함의 에너지가 떠오르는 중이다. 당신이 지닌 바로 그 에너지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1	5
	6			5	1	3		
				3	4	8		
	2	5		1			4	8
				7				
1	4			2		6	3	
		6	3	9				
		9	1	6			5	
2	3						8	

5					8			
2		9				8	5	6
7		4			6			
	7		4					1
		3	1		2	7		
6					7		3	
			8			9		4
8	9	7				2		3
			7					8

스도쿠 정답

3	9	4	7	8	6	2	1	5
7	6	8	2	5	1	3	9	4
5	1	2	9	3	4	8	6	7
9	2	5	6	1	3	7	4	8
6	8	3	4	7	9	5	2	1
1	4	7	8	2	5	6	3	9
4	5	6	3	9	8	1	7	2
8	7	9	1	6	2	4	5	3
2	3	1	5	4	7	9	8	6

5	3	6	2	9	8	1	4	7
2	1	9	3	7	4	8	5	6
7	8	4	5	1	6	3	9	2
9	7	8	4	5	3	6	2	1
4	5	3	1	6	2	7	8	9
6	2	1	9	8	7	4	3	5
3	6	5	8	2	1	9	7	4
8	9	7	6	4	5	2	1	3
1	4	2	7	3	9	5	6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자식과의 인연이 있는지요 입양생각은 접고 낳으세요

기쁜걸 여자 77년 9월 18일 음력 4시~6시
남자 74년 2월 18일 음력 9시~10시

Q 선생님, 작년 9월 8일 올려주셨던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저에게 자식과의 연이 있는지요. 친자식이든 입양아든 서로에게 불행을 주면 고통일 거 같아 겁이 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부부가 온전한 사랑을 주면서 잘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지….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믿음이 없습니다.

A 사주 일주가 경신(庚申)으로 신강에 상관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은 경솔(輕率)을 나타내며 관(官:의지)을 치게 되니 표현력이 부정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면 경솔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솔하다는 것은 경거망동하여 실수를 연발하는 것으로 무게감이 부족해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친자식도 멀어질 수 있는데 입양아는 반대지요. 절제함이 부족하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언제나 구설 시비가 따르게 됩니다. 이런 인연법으로 자신이 남편 덕이 박하다고 스스로 진단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칠 수 있으니 의지하는 마음을 조금은 접고 자녀를 낳고 고생스러워도 극복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굳혀보십시오.

아파트평수를 늘리고 싶은데 2017년까지는 현재 집에서

가네코 여자 66년 9월 2일 오전 7시경
남자 60년 4월 11일 (12시경?)

Q 지난해 남편 직장 문제로 도움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고요. 이번에 상의드리고 싶은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지금 살고 있는 20평형 작은 아파트를 팔고 근처에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 대출도 좀 받아야 하는데 매매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요.

A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사주팔자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음대로라면 내놓고 팔아 대출이라도 받아 우선 넓은 곳으로 가고 싶겠으나 2014년 귀문살(귀신이 들락거리듯 비정상의 흉함)에 문서운이 충살(沖殺)을 받고 있어 부동산 계약이 될 수 없으며 재성이 쇠지(衰地)로 가고 있어서 일을 벌이다가 재물의 손실을 겪게 되어 화를 키우게 됩니다. 이해를 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복을 불러오게 됨을 인식하여 2017년까지 관망 자세로 지내십시오. 2017년 안에 살려던 물건이 갑자기 오른다 해도 생일지에 장성(將星)으로 자기 중심의 소견에 사로잡혀 고집을 피우면 손실이 따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4일 (음 2월 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60년생** 지인에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72년생** 불안하나 목적지에 도착한다. **84년생** 변신하려면 익숙한 것과 이별하라.

49년생 남을 불행하게 하지 않는지 살펴라. **61년생** 몸도 마음도 태평하다. **73년생** 우물 가서 숭늉을 찾지 마라. **85년생** 메마른 대지에 씨앗이 움트는 격이다.

50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62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아싸~. **74년생** 이성과 가까이하면 망신만 당한다. **86년생** 네모난 것보다 둥근 것이 잘 구르는 법.

51년생 벗의 변신에 신선한 충격~. **63년생** 삶에 도약이 될 기회가 온다. **75년생** 운동이나 레포츠 때 부상 조심~. **87년생** 땀 흘린 만큼 수입이 생겨 지갑이 춤을 춘다.

52년생 배우자 변덕 참아야 한다. **64년생**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76년생** 새 일의 성공은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 **88년생** 못마땅해도 상사 충고 받아들여라.

53년생 속내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65년생** 갑자기 심사받을 일이 생긴다. **77년생** 부동산 쪽에 행운이 따르니 참고하라. **89년생** 병 주고 약 주던 사람은 떠난다.

42년생 용돈이 생겨 한턱낸다. **54년생** 허황된 사람과의 동업은 포기하라. **66년생** 최선을 다하면 행운도 따른다. **78년생** 사소한 일에 너무 따지지 마라.

43년생 건강은 스스로 챙겨라. **55년생** 중책을 맡고 어깨가 무거워진다. **67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니 서두르지 마라. **79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

44년생 걱정한 일은 좋아진다. **56년생** 배우자 마음은 나와 달라 아휴~. **68년생** 한 가지 일에 승부를 걸어야 승산 있다. **80년생** 변수가 많으니 자만 말고 겸손할 것.

45년생 지출은 형편에 맞춰라. **57년생** 기분대로 움직이면 후회만 남는다. **69년생** 손해 보더라도 부당한 요구는 들어주지 마라. **81년생** 계획대로 진행해도 좋다.

46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고민 없어진다. **58년생** 평소 꺼렸던 일을 시작해도 무방~. **70년생** 예측이 어긋나서 황당하다. **82년생** 곧 없어질 일에 공들이지 마라.

47년생 집안 갈등 일으키지 마라. **59년생** 분수를 지키면 만사형통이다. **71년생** 망신수 있으니 이성의 유혹 조심~. **83년생** 원망하는 마음 가지면 들어오던 복도 도망간다.

K리그 올해의 구단 유니폼 3일 오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4 K리그 클래식 미디어데이'에서 각 구단 선수들이 새로운 유니폼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용병 홈런전쟁 '째깍째깍'

프로야구 시범경기 8일 개막

빅리그 출신 스캇·칸투 주목… FA 이적생 활약도 관심

2014 한국 프로야구가 주말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기지개를 켠다.

막내 구단 KT 위즈를 제외한 9개 구단은 50여 일의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8일 개막하는 시범경기를 통해 최종 점검한다.

시범경기는 팀당 12경기씩 16일 동안 총 54경기가 치러지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 경기가 오후 1시에 시작하며 연장전은 없고 우천 시에는 취소된다.

올해는 3년 만에 등장한 외국인 타자를 볼 수 있어 팬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각 구단은 올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등록 기준이 기존 2명 보유, 2명 출전에서 3명 보유, 2명 출전으로 확대되고 투수와 야수로 구분해 한 포지션에 전원 등록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1명씩 외국인 타자를 영입했다.

스프링캠프에서 구단에 기량을 선보인 외국인 타자들은 이제 실전에서 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화력을 점검한다.

호르헤 칸투

루스 스캇

외국인 타자 중 가장 눈길이 쏠리는 선수는 '현역 메이저리거'로 뛰다 SK 와이번스의 유니폼을 입은 루스 스캇이다. 그는 빅리그에서 135홈런을 기록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지난달 2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평가전에서 마수걸이 홈런을 기록하더니 28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도 아치를 그렸다.

메이저리그 통산 104홈런의 호르헤 칸투(두산 베어스·)도 팬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일본 세이부 라이온스전에서 홈런을 신고했다.

루이스 히메네스(롯데 자이언츠), 브렛 필(KIA 타이거즈), 비니 로티노(넥센 히어로즈), 펠릭스 피에(한화 이글스), 에릭 테임즈(NC 다이노스) 등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는 타자들도 장전을 마쳤다.

수십억원 몸값의 '귀한 몸' 자유계약선수(FA) 이적생들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SK에서 한화로 옮긴 내야수 정근우는 시범경기 개막전, 새로운 홈 대전에서 옛 동료 SK 선수들과 맞선다. NC에 둥지를 튼 이종욱과 손시헌은 18일 마산구장에서 친정팀 두산과 경기를 펼친다.

시범경기 중반부터는 '구장'을 보는 재미도 생긴다.

KIA의 새 홈구장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는 15~16일 두산과의 경기로 첫선을 보인다. 롯데는 22~23일 한화를 상대로 제2구장 울산 문수구장 개장경기를 치른다. 20일부터는 펜스 교체 및 관중석 설치로 새로 단장한 잠실구장과 문학구장에서 경기를 볼 수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패배에도 기성용 존재감 빛났다

풀타임 '펄펄'… 선덜랜드 맨시티에 져 리그컵 준우승

기성용(25·선덜랜드 AFC)의 컵대회 기적은 아쉽게 결실을 맺지 못했다.

기성용이 풀타임 활약한 선덜랜드는 3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끝난 맨체스터시티 FC(이하 맨시티)와의 2013~2014 캐피털원컵 결승에서 초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아쉽게 1-3 역전패를 당했다.

선덜랜드는 전반 9분 만에 터진 파비오 보리니의 선제골로 기세를 잡았다. 이후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볼 점유율을 높인 여유 있는 공격으로 맨시티를 압박해갔다.

그러나 후반 9분 야야 투레에게 동점골을 내줬고, 1분 뒤 사미르 나스리에게 또 한 골을 내주며 급격히 무너졌다. 이어 경기 종료 직전 헤수스 나바스에게 쐐기골마저 주며 우승컵을 내주고 말았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선덜랜드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권인 18위에 머물러 있고, 맨시티는 1위 첼시 FC(승점 60)에 승점 3 뒤지는 3위로 큰 격차를 보인다.

그러나 선덜랜드는 예선부터 기성용의 활약을 앞세워 강팀을 잇달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선덜랜드 기성용(우)이 맨시티와의 결승전에서 페르난지뉴(좌)와 공을 다투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해 스완지시티 소속으로 캐피털원컵을 들어 올린 기성용은 올해 대회에서도 맹활약하며 컵대회에 무서운 강세를 보였다. 기성용은 첼시와의 8강 2차전에서 연장 후반 결승골을 뽑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와의 4강에서는 1개의 어시스트와 승부차기 득점으로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기성용은 비록 캐피털원컵을 2년 연속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톱클래스 팀들을 상대로 맹활약하며 빅리그에서 강한 존재감을 확인했다. /유순호기자 suno@

러셀 헨리(왼쪽)가 3일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클래식에서 우승을 확정 지은 뒤 로리 매킬로이(25·북아일랜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매킬로이 제친 헨리 혼다 클래식 연장우승

미국 신예 골퍼 러셀 헨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클래식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헨리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PGA내셔널 챔피언 코스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라이언 파머(미국), 러셀 녹스(스코틀랜드)와 벌인 연장전에서 버디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생애 두 번째 PGA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유순호기자

오승환 없어도 '여전히 강한' 삼성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과연 삼성 라이온즈는 최강 전력을 유지할 것인가? 오키나와 전지훈련이 끝나면서 오승환 없는 삼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만난 류중일 감독은 "오승환은 전력의 20%였다.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오승환의 비중은 훨씬 크다.

오승환이 뒷문을 지켰던 삼성의 9년을 보면 그의 존재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번 우승한 해에는 어김없이 오승환의 돌직구가 뒷문을 지배했다. 2007년과 2008년은 상대적으로 선발진이 약했고 2009년과 2010년은 오승환의 어깨와 팔꿈치가 좋지 않았던 시기였다.

오승환의 부재로 중간계투진이 약해진 것만은 틀림없다. 필승맨 안지만이 새로운 소방수로 낙점을 받았다. 이현동·김희걸·김현우 등이 안지만의 자리를 메워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검증받지 않은 물음표 전력이다. 뒷문이 흔들리면 앞문과 타선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삼성은 1996년 해태 타이거즈와 닮았다. 당시 해태는 최강의 소방수 선동열이 주니치 드래건스에 입단했다. 선동렬의 부재는 해태 시대의 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그럼에도 해태는 96년과 97년 한국시리즈 2연패를 달성했다.

이유는 남은 자들의 노력이었다. 이순철 SBS 해설위원은 "선동렬의 부재로 외부에서 약체로 평가했지만 오히려 선수들의 오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마도 지금 삼성 선수들의 마음은 당시 해태 선수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삼성은 두터운 마운드와 강한 타선, 짜임새 있는 수비진을 보유하고 있다. 최강이라는 자부심도 그들의 장점이다. 해태 선수들처럼 위기의식을 결속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다. /OSEN 야구전문기자

"추신수·이대호 부상 막아라"

한국 야구 역사상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 최대 몸값을 기록한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2)와 소프트뱅크 호크스 이대호(32)의 부상 방지를 위해 각 구단이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는 3일 진행된 시범경기에 추신수를 결장시켰다. 전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시범경기에 이어 두 번째 결장이다.

타드 레빈 텍사스 단장은 경기를 앞두고 "추신수가 훈련 도중 생긴 왼팔 근육통 탓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빠진다"며 "통증이 가벼워 하루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도 이대호가 목과 등의 가벼운 통증을 호소하자 이틀간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양성운기자

프로농구 전적 3일

삼성생명	21	14	19	19	73
하나외환	12	11	12	14	49

AIG손해보험 60주년 | AIG상품관리 제13-DM0247호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0099호(2014년 1월 20일)

노후엔 병원 갈 일도 많은데 사망보장뿐이라고?

나이들면 여기저기 다치기 쉬우니까
노후보험도 보장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모님건강보험 1103

상해 소득 보상금 3천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지급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0만원(180일 한도)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 사망보험금 1천만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지급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Active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월 보험료(1인당, 단위: 원/남녀공통)

기본계약	선택계약			월 보험료
Active보험금	상해 소득 보상금	상해중환자입원일당	상해 사망보험금	
50-89세		50-79세	50-89세	50-79세
5,770	250	1,540	860	8,420

•가입연령 : 30-75세 •납입기간: 전기납 •보험료는 상해 1급 기준이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상이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Active보험금, 상해 소득 보상금, 상해 사망보험금은 최대 90세까지(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은 최대 77세까지) 재가입 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암만 무서운줄 알았는데 중년 3대 큰병?

중년이 되면 암도 조심해야하지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큰 병도 대비를 해야합니다

무배당 Super 큰병이기는보험 1304 〈L2102〉

암보험 하나로 불안한 중년을 위한 똑똑한 보장!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3대 큰병을 하나로!

암진단비 2천만원(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 최초 계약후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최초 1회한)
최초 계약후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원(최초 1회한)
최초 계약후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

기본 계약

골절・화상 진단 의료비용, 골절수술 의료비용 1천5백만원 한도
상해로 약관에 정한 골절・화상 진단 또는
골절수술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월 보험료(1인당, 단위: 원)

기본계약	선택계약							
15-89세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월 보험료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3,230	30세	1,440	4,340	600	360	500	180	15,770	18,110
	40세	4,060	9,760	1,760	880	1,020	360	20,070	24,230
	50세	9,800	11,220	4,460	3,100	1,760	720	29,250	28,270

•가입연령:15-65세 •납입기간 : 전기납 •보험료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상이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음**

*5년 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80세까지(골절・화상 진단 의료비용, 골절수술 의료비용은 9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령증가와 요율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40,840	1,616	0.7%
3년	722,520	29,244	4.0%
5년	1,204,200	–	0%

•예시기준: 상기 플랜 가입시, 최초계약, 5년만기, 전기월납, 순수보장형, 40세 남자 기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청약철회: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불이행시 가입후 3개월 이내 계약취소 가능 *보장개시일 : 1회 보험료를 납입한때, 또는 신용카드 계좌정보 고지후 부터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 시, 상품설명서와 약관 혹은 홈페이지 참고 *기보험 해지 후 신규 가입 시, 가입제한,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상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상품구성은 가입하시는 플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보장내용은 증권 및 청약서를 참조

www.aig.co.kr

AIG 더 좋은 내일